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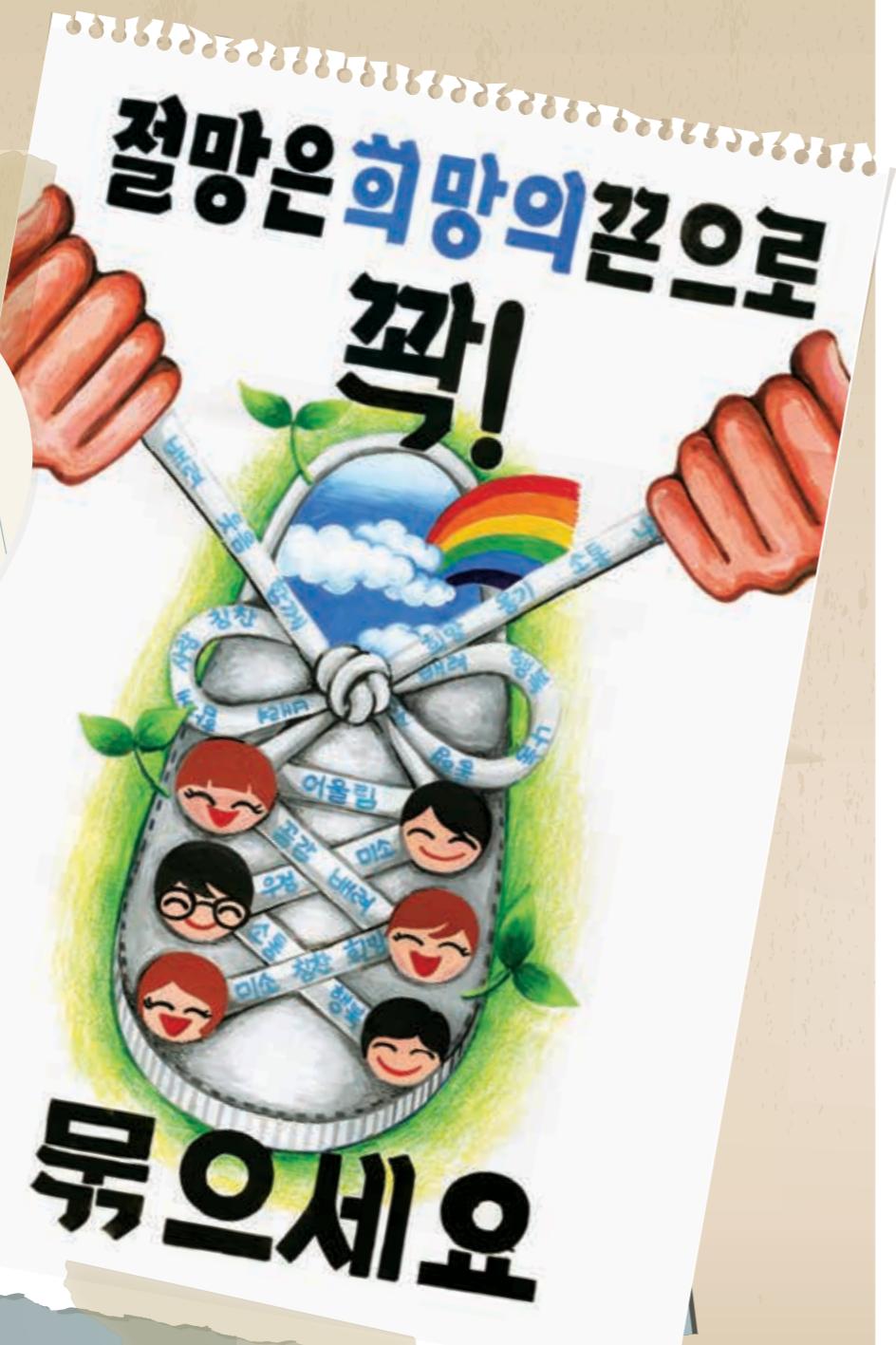
교육부

단 한 명의 자살학생도 많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말해주세요.

괜찮아
사랑해
힘내!



Contents



03

현장 이야기

02 꿈이 영그는 현장
파주 세경고등학교

06 삶과 교육
서강석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감

10 이런 수업 어때요
김진희 교사의 '진로·인성 미술수업'

14 화재의 교사
이태경 이천 양정여고 교사

16 에너지충전소
전북교과통합체험학습연구회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회



11

정책 이야기

함께 하는 교육개혁

- 34 국민행복 교육개혁 성과 쑥쑥
- 36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제도 뒷받침 듣는
- 38 "나의 선취업 후진학 성공기"

기획 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 교육의 힘

- 20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교육, 한·불 교육협력 속도 붙는다
- 22 아프리카에 솟는 희망의 땀, 베어프로젝트
- 26 비정부기구(NGO) 한마음으로 아프리카 지원
- 28 국제사회 리더로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 30 OECD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

32 클릭, 교육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교육나침반, 교육과정정책관

40 정책과 소통

이준식 부총리, 대학 총장들과의 대화

44 초점 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성황

48 청년들에게 꿈을 대학(원)생을 위한 창업지원

50 정책카툰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14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미래 인재와 소프트웨어 교육

- 52 유망 산업 전망을 통해 바라본 미래 교육
- 54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56 시도교육청 플러스_ 다문화교육

인천/대구/전남/부산/울산/충남/대전/경기

60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
_ 충남 천안동성중학교

64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스스로를 혁신하는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66 학급경영노트

7월, 한 학기를 정리하는 보석같은 네 가지 교실 활동

68 학교 밖 학교

구석구석 떠나는 세계유산 탐방

70 명예기자 리포트

배움의 빛으로 기득한 호롱불 야학 외

74 자녀교육 Q&A

내 머리에 맞는 계획표 만들기



44

교양 이야기

76 생각나눔

학급DAY~ 뜻 깊고 재밌게 보내는 방법

78 뉴스브리핑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개최 외

80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五자만답



Vol. 408
July 2016

COVER STORY

초·중·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 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교장 박형식) 세계전통의상실에서 각 나라의 의상 을 입은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다국적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한국문화와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들이 의 웃는 모습에서 세계 속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 최우수교로 알려진 파주 세경고는 교과·비교과를 넘어서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교사들이 솔선수범하며 역량을 키우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레 전이되고 있다. 교사가 먼저 배우고,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누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세경고의 인성교육이 특별한 이유다.

파주 세경고등학교

앎과 삶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학교

파주 세경고(교장 이준화)의 점심시간은 조금 특별했다. 아니 강렬했다.

종이 울리고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드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피켓을 든 긴 행렬이 이어졌다. 식당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바른말 누리단’ 동아리 학생들이 바른 말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연 것이다.

한쪽에서는 ‘누리보듬’ 학생들의 ‘학교폭력 절대 NO’를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매주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던 학생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 플래시몹을 만들고 활동범위도 인근 학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확대되었다. 누리보듬 활동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파주 경찰서와 손을 잡고 학교폭력 근절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황태욱 학생(2학년·반도체디스플레이과)은 “누가 시켜서 한일은 아니었어요. 보람된 일이고 캠페인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변화가로 나가서 학교폭력 근절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런 학생들의 노력으로 세경고는 학교폭력이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되었다.

“학교 밖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도 있고 전기 등 주변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와 인성이 자립니다. ‘창의’는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누군가를 돋고



자 할 때 생기는 데 ‘누리보듬’은 창의와 인성이 절묘하게 만나는 동아리예요.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준화 교장의 설명이다.

‘인성이 짹는 학교’가 되기까지

세경고의 전신은 파주공고다. 2010년 세경고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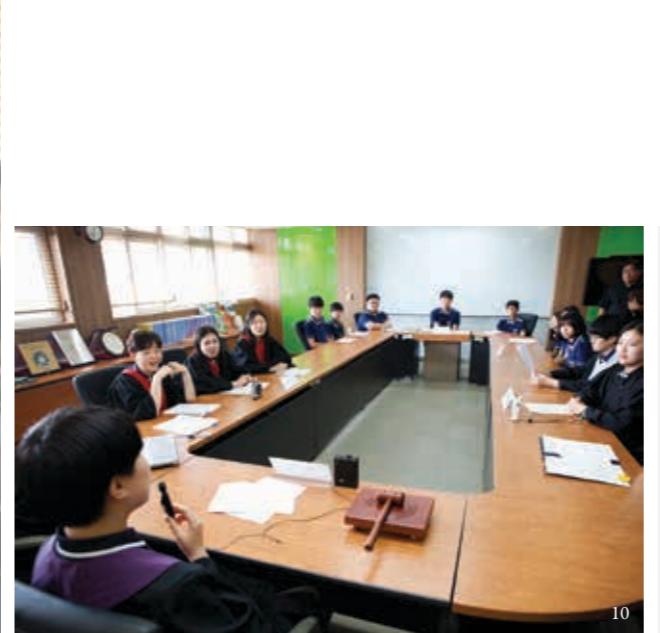
“파주공고 시절, 하루의 일과를 출석체크로 시작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학생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활지도에 쏟다보니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됐죠.” 한 교사의 고백은 파주공고 시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대변해 준다. 그랬던 학교가 지금은 인성교육 최우수학교로 전국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무엇이 학교를 변하게 했을까?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세경고



- 01 02 리더십교육을 통해 자기관리를 배운 학생들의 꿈을 담은 배지와 그 노력 과정이 빼곡하게 담긴 플래너
- 03 ‘바른말 누리단’의 캠페인
- 04 울곡전통문화학교 자원서원에서의 예절교육
- 05 ‘갈곡천 살리기’ 동아리 학생들의 환경정화 운동





교사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수업만 제대로 하자, 기본에 충실하자고 뜻을 모았다. 기본에 충실한 수업,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더불어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교사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론은 창의 역량을 갖춘 성품이 우수한 아이로 길러내자는 것이었다.

이후 교육적 가치를 공유한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갖춰나갔다. 30곳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각종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화과정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현재 30%의 교원이 인성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 수업비평, 협동학습, 배움의 학교 공동체, 학교 안팎 연계 융합교육, PBL, 융합교육, 창의적 교수법 등 다양한 연수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그밖에도 갈등관리 역량, 심리적 감성역량, 자기관리 역량, 상담 역량 등을 갖춘 최고의 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 11일에는 소통역량 강화 연수가 기다리고 있다.

‘리더십-공동체-글로벌교육’ 인성교육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세경고인성교육의 특징이다. 학교는 ‘교사가 먼저 배우고, 아이들에게 같이 배움을 나누고, 학부모가 함께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세경고의 인성교육은 입학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다. 2월경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자긍심이 낮은 학생들이 앞으로 세경고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을 주제로 리더십 교육을 해오고 있다. 이 때 SPQ 사회성·인성검사, 학습효율성 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등도 함께 이뤄진다. 여기서 긍정적 표현과 원원을 추구하는 소통능력, 자기관리 역량을 배우게 된다. 2학년은 리더의 인성 함양, 공동체 교육, 나를 돌아보는 교육 내용을 담은 서번트 리더십 교육을 비롯해 율곡전통문화학교 자원서원에서 예절교육을 진행한다. 3학년은 기업가 정신, 글로벌 에티켓을 익힐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등을 열고 있다.

“교사의 태도와 역량이 달라지는 만큼 아이들의 태도와 역량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학교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 교사들이 먼저 연수를 받고 있어요. 외부 강사가 강연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교사들이 자격을 취득해 직접 강연하기도 합니다.” 안광현 교사의 말이다.

삶의 가치를 깨닫고 성장하는 아이들

세경고의 인성교육은 교과·비교과를 넘나들고 있다. 일례로, 바른말경연



08

09

06 교사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되고 있다. 점심 시간, 교정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07 세경고의 변화는 협력 및 토론 수업 등 인성중심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국어시간, 학생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

08 세경고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 훈적들

09 점심시간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누리보듬’ 동아리

10 학생 자치법정

대회, 우리말 달인대회, 인문학경진대회 등은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필 평가가 마무리된 7월, 10월경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시간에 교육과정 연계 수업으로 이뤄진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바른말 누리단’이나 ‘누리보듬’에 참여하는 식이다.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이젠 더 넓은 사회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세경고는 5년 전부터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일회성 행사에 머물렀던 갈곡천 환경 운동 이후 뜻을 함께한 몇몇 학생들이 ‘갈곡천 살리기’ 동아리를 만들었다. 적은 인원으로 수질정화가 쉽지 않았던

INTERVIEW

66

‘앎=삶’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99

교장 이준화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는 ‘앎과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목적도 아이들이 자기 일, 자기 삶을 잘 누리는 아이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앎과 삶이 같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응당 실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3년간 어떤 인성교육을 받나요?

매년 20~30개 중학교의 아이들이 세경고에 진학해요. 대부분 남학생입니다. 학년 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고 종종 거친 말투도 목격됩니다. 신입생들이 제일 힘겹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지요. 그래서 입학 전인 2월경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교육을 시작으로, 2학년은 서번트 리더십, 3학년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 등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3년 동안 다양한 인성교육을 받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인성이 바로선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경고는 세상을 바꾸는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과 그래서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터라 옆 동아리와 연합하게 되었고 수질 개선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갈곡천 살리기에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들은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늦은 밤, 주말까지도 반납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창체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하였다.

박상현 교사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활동을 교사가 주도하며 이끌어 갔어요. 그랬던 것이 다양한 활동경험이 쌓이

면서 이젠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며 자율적인 동아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인성교육의 궁정적인 영향은 성실한 학습태도는 물론이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삶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응당 실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앎과 삶이 같아 하는데, 서서히 내면화되며 체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성장이 아닐까요.” 이준화 교장의 말에 깊은 울림이 느껴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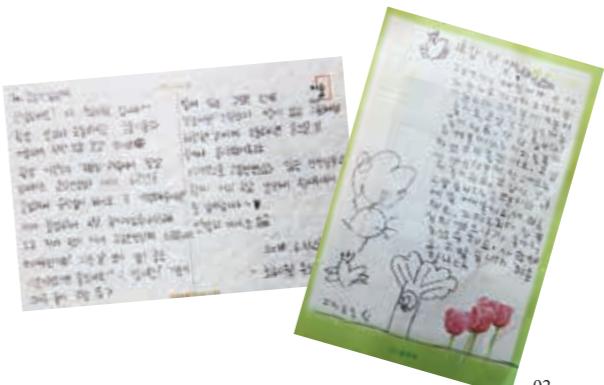
어린 시절의 경험은 마음의 지형을 결정한다. 치열한 노력과 성취는 우뚝 봉우리를 세우고, 지독한 결핍과 좌절은 깊은 골짜기를 그린다. 그러므로 성취와 좌절은 어느 것이나 아름답다. 다만, 위태로운 길 위를 비춰줄 등불 하나가 필요할 뿐이다. 아낌없이 나누고, 외진 길도 함께 하며 삶을 통해 빛나는 서강석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감. 그는 아이들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01

서강석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감

삶으로 가르치는 작은 나눔 행복한 동행



감의 꿈은 더욱 또렷해졌다.

날갯죽지를 파고드는 아기새처럼 아 이들이 모여든다. 서강석(52) 교감은 큰 품을 열어 아이들을 맞는다. 교감으로 지낸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등 콧길 교통정리를 하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 탓이다. 춥거나 더운 날이나, 비 오거나 바람 부는 날이나 그는 아침 8시면 어김없이 거리 위에 선다.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먼저 묻는다. “우리 교감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시골아이들에게 성취의 기쁨 선물하기

가난한 시절이었다. 공사장 막노동, 식당 청소, 야간 방범, 면사무소 사무보조, 시내 하수구 청소 등 온갖 일을 전전하며 대학을 다니는 동안 서강석 교

“수많은 직업 가운데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의 도움으로 어린이의 꿈이 실현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나 같은 어려운 제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서강석 교감은 정식 발령이 나기 전 기간제 교사로서 '88년 음성 수봉초에서 아이들과 처음 만났다. 당시 부진을 면치 못하던 육상부를 맡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훈련에 매달렸다. 기간제 교사 월급 229,500원을 받으면 집과 학교를 오가는 교통비와 밥값으로 흡여졌다. 그나마도 방학이면 월급이 끊겼

다. 그런데도 육상부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 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로 향했다. 더 큰 세상 속에서 당당히 실력을 겨루고 승리를 거머쥐는 기쁨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였다.

기간제 교사와 육상부 아이들의 쉼 없는 질주는 각종 육상대회에서의 빛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지내던 한 아이를 발굴해 육상대회 800m 우승을 비롯, 충북을 대표하는 중장거리 선수로 커나가는 데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어 서강석 교감은 근무하는 학교마다 육상부, 축구부 등을 맡아 팔목활 성과를 이루어냈다.

“어린이는 교사의 관심만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작은 보살핌 하나, 사랑스런 눈길 하나가 어린이의 미래를 좌우하지요. 교사생활 2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벽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총 350회의 수상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 가장 뿐 듯합니다.”

육상부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계기도 있었다. 경기를 하면 주위 선수들보다 트랙에서 한 바퀴 이상 뛰쳐지는 아이

01 사제동행을 실천해 온 서강석 교감은 올해 5월 제5회 대한민국 스승상 균정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인성교육은 훈화가 아니라 교사 자신이 실천으로 가르치는 것이기에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02 날마다 아침 교통지도를 하는 서강석 교감에게 아이들의 팬레터가 종종 날아든다.

03 04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 어색하게 굳던 서강석

교감이 아이들이 몰려들자 금세 얼굴빛이 환해진다.

05 교육은 희망이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서강석 교감

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의지는 대단했다. 등하굣길에 버스를 마다하고 뛰어다녔고, 초시계를 들고 다니며 기록을 관리했다. 심지어 구역질을 하면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6학년 때는 군대표로 선발되어 도대회 구간 마라톤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당시 서강석 교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거북이 만세’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남겼다. 교사가 아이의 가능성을 간단히 재단하고 한계지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한 일이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

육상뿐 아니라 과학부를 이끌 때도 각종 대회서 두각을 드러냈다.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 모형항공기대회 등에서 작은 학교의 전교생이 학교버스를 타고 출전해 메달밭을 일구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손만 대면’ 상을 타는 그를 일컬어 승부사라고 입을 모았다.

사실, 영광의 결실은 지독한 노력의 결과였다. 아침이면 전교생과 달리기를 하고, 오후에는 육상부 체육훈련



03

을, 밤에는 과학경진대회 준비에 매달렸다. 아이들을 일일이 집에 데려다주고 120리 길을 달려 귀가하면 밤 10시가 넘기 일쑤였다.

“육상부를 지도할 때는 태릉선수촌까지 찾아가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몇 미터를 달리느냐에 따라 품이나 보폭이 다르거든요. 과학부를 지도하면서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라디오 제조회사에 수십 번 전화를 걸고 전파사에 수시로 찾아가 배웠지요. 혹자는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을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말하지만, 행운도 노력한 자에게 따른다고 믿으니까요.”

서강석 교감은 육상심판자격증까지 도시락을 준비해 와 함께 나눠먹고, 불

취득할 정도로 어느 일이나 대강 하는 법이 없다. 가르치는 일은 곧 배우는 일

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자신도 각종 수

업연구대회에 나가 입상한 것만 22차례에 이른다. 1996년 영동군 3학년 사

회과『우리고장 영동』, 2008년『우리

고장 청주』를 집필하고 각종 장학자료

발간에도 참여했다.

학급회의 시간에 갑자기 발작을 일

으킨 학생을 능숙하게 보살피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전주우석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기도 했다. 또한 한

국교원대 교육대학원과 충북대 대학원

에서 교육과정 전공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원대에서 상담과정도 수

료했다. 교사 안에 배움이 가득 차 있



04



우한 가정환경 탓에 가출과 결석이 잦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기도 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에게 밀반찬과 쌀을 챙겨주고, 조모와 단둘이 사는 아이를 졸업 때까지 부모처럼 돌봐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각종 대회서 받은 크고 작은 상금이나 토요방과후 배드민턴 강좌를 지도하며 받은 강사비 일체를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가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서강석 교감이기에 어린 시절 친척분이 가끔 쥐어주시던 돈 천원의 가치가 마음 깊이 박혀있어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나누어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멈추지 않는 사랑의 손길

어려운 제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교직 내내 실천으로 옮겨졌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르는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와 함께 나눠먹고, 불

학을 포기하게 됐다는 한 제자의 소식을 듣게 됐다. 그날 밤 서강석 교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결국 적금을 헐었다.

교사는 삶으로서 가르친다

“초등학교는 모든 인간교육의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말이나 훈화가 아니라 교사 자신이 모범을 보이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교사는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교직관, 더 나아가 자부심과 책임감이 넘치는 교직관이 필요합니다.”

사제동행, 연행일치의 가치를 삶을 통해 가르치는 서강석 교감에게도 언제나 닳고 싶은 스승이 있다. 김현국 교장(덕벌초 퇴임)과 박대섭 교장(청주교 대부설초)이다. 김현국 교장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따듯한 인간애를 보여주셨고, 박대섭 교장은 큰 비전을 갖고 구성원 개개인을 인정하는 리더의 참모습을 가르쳐주셨다. 선배 교육자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과제다.

서강석 교감은 교육은 희망이요, 희망의 사다리여야 한다고 말한다. 어려움 속에 간힌 아이들이 희망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교사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삶을 바꾸는 건 교육자 한 사람의 ‘실천’이다. ■

좋은 수업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안다고 했던가.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며 채색하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교장 정원선) 김진희 교사의 수업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술활동 자체를 아이들의 관심 안에 두고 그 속에서 꿈과 인성이 싹트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진희 교사의 '진로·인성 미술수업'

팝아트·종이공예·네일아트… 신나는 미술로 꿈과 인성 쑥쑥



'키처럼 마음도 자라고 있는 것일까?'

"모습의 변화와 달리 마음의 안자락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김진희 울산미용예술고 교사는 인성중심 미술수업을 꿈꾼다. "미술은 자기에 대한 탐구와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교과"라는 설명을 더했다. 여기에 특성화고로 부임한 이후, 아이들의 진로와 미술을 연계한 수업으로 꿈과 인성이 자라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 얼굴이 달라 보여."라며 어색해

팝아트 자화상으로 내면 들여다보기

"내 얼굴 맞아?"

지난 달 16일 3교시. 울산미용예술고 미술실에 모인 고3 학생들은 '나에게 그리는 그림'을 주제로 팝아트 자화상을 그렸다. 첫 시간,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며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사진을 따라 형태를 그리고 채색에 이르기까지 총 6차시 동안 어느 때보다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봤다. "내 얼굴이 달라 보여."라며 어색해

하다가도 붓 터치 하나 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특히, 감각적인 색채와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팝아트의 매력은 아이들을 수업에 더욱 몰입하게 했다.

"외모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외모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기도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신중해지고, 나 자신을 집중력 있게 표현하게 돼요. 나와 솔직하게 마주서야 비로소 진실한 나와 만날 수 있지요."

자화상 옆에는 베킷리스트를 적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백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헤어샵을 내는 소중한 꿈을 적었다. 지난 시간 찍은 사진 위로 볼펜을 꾹꾹 눌러 자신의 얼굴 형태를 그리고, 눈동자 하나도 허투루 그리지 않은 터라 더 남다른 각오가 생겼다. 완성된 얼굴 표정이 뚝해 보이자 한 학생은 '항상 행복하게 웃고 지내기'를 베킷리스트에 넣었다. 고민 끝에 펜을 내려놓은 강유진 양은 "냉정한 눈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됐다. 나에 대한 시간이었던 만큼 베킷리스트를 쓰는 것도 좀 더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현재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이 없어도 괜



04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과 김진희 교사(맨 왼쪽)

05 아이들은 6차시 동안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신중하게 표현하게 된다.

06 07 자화상 옆에는 버킷리스트를 적어 자신을 되돌아 본다.



04



찮으니 먼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도록 한다. 자신의 부족한 점에서, 자기다운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절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문교과와 융합으로 진로와 연계

김 교사의 수업은 자신의 감정을 풀어 놓고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연계 수업이 이뤄진다. 지난 시간에는 색채의 효과를 배우는 네일아트가 4차시 동안 진행됐다. 모둠별로 색의 이미지에 대해 토론한 후, 잡지 책 등을 이용해 패션에 이용된 이미지별 스크랩을 만들었다. 평소 외모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갔다. 이후 모둠별로 네일 패턴지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이미지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네일 팁(인조손톱)을 완성했다. 로맨틱, 프리티, 엘레강스, 다이나믹 등 다채로운 색의 이미지가 눈길을 끈다.

“전문교과인 네일아트 교과와 주제 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직접 연계되는, 경험적이고 창의적인 실습으로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경계를 없애고 패션 잡지 등을 활용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했지요.”

김 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직접 연계된 활동을 미술수업 안으로 들여온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관심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인터넷·서적 등을 부지런히 접하며 최신 유행도 놓치지 않는다. “아이들도 어느 순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형태 그리기 등 어려운 과정은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수·



종이공예·캘리그라피 등 색다른 시도

종이공예, 캘리그라피, 네일아트 등은 아이들의 관심사를 오롯이 반영한 결과다. 미술에 자신 없어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형태 그리기 등 어려운 과정은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지도안을 짰다. “단 한명도 재미 없어 하는 아이가 없다.”는 수업의 탄생 비결이다.

페이퍼 커팅을 이용한 조명등 만들기는 과학교과와 융합을 시도한 수업이다. 종이공예를 통해 조명등의 외부 디자인을 꾸미고, 과학교사와 co-티칭을 통해 조명등 불을 밝혔다.

종이감기를 이용한 캘리그라피는 아이들이 유독 즐거워했던 활동 중 하나. 우연히 종이감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본 후, 색색종이를 감아

캘리그라피 형태로 창의적인 문자 모양을 표현했다. 미술에 자신 없는 아이들도 이때만큼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물에 뿌듯해 했다.

“감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다양해 보이는 미술을 수업에서 하면 스스로 즐거워하며 참여해요. 미술을 할 때 형태 그리는 일을 가장 힘들어하는데, 도안을 미리 주거나 종기감기와 같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미술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요. 완성된 작품을 보면 잘못한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김 교사는 모둠을 통한 협력·융합 활동으로 수업을 이끈다. 이를 통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표현을 하도록 수업 설계에도 대부분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다.

팝아트로 자화상 그리기

- 먼저 학생들 얼굴사진을 찍어줍니다.
- 학생들 사진을 흑백(A4사이즈)으로 출력해 줍니다.
- 출력된 사진을 하드보드지 윗면에 고정합니다.
- 얼굴 모양대로 볼펜을 눌러 따라 그립니다.
- 볼펜 자국을 따라 그리되, 조금 수정하면서 스케치를 하면 준비 끝!
-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합니다.
- 마무리로 팝아트의 특징인 테두리를 검정 마카로 따라 그립니다.
- 팝아트 초상화를 칼라 출력해 학생들이 수시로 감상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 완성된 작품에 나의 꿈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도록 합니다.

‘좋은 수업은 아이들이 주인공’

15년차 교사인 그는 여전히 수업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인공인 수업’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수업 노하우의 가장 큰 비결이다.

“올해 미용·예술분야 특성화고로 부임한 후 가장 큰 고민은 미용과 융합할 수 있는 미술수업입니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는 아이들인 만큼 그들의 진로와 꿈을 도우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열심히 찾고 있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준비하고자 노력한다.”는 그는 오늘도 내일도 또 다른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

색채 효과를 배우는 네일아트



① 색의 이미지별 검색하기



②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③ 색의 이미지별 색상 정하기



④ 네일 팁에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기



⑤ 완성된 네일 팁에 탑코트 (광택제) 바르기



⑥ 모둠별로 꾸미기

이태경 이천 양정여고 교사

변화를 창조하는, 나는야 체인지 메이커



‘교실을 대여해 드립니다.’

경기 이천 양정여고 본관 3층에 위치한 ‘우아한 교실’은 이 학교 학생 누구나 신청하면 대여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다. 지난해 문을 연 이후 교실 앞 화이트보드에는 교실 대여를 신청하는 예약으로 빼곡하다. 1인당 대여료는 500원. 단, 보드게임은 500원을 추가 지불하는데, 이용자 양심에 따라 교실 내 양심저금통에 내면 된다.

“학생자치실로 만들어진 공간을 전교생이 참여해 공유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만 3년여가 걸렸지요. 해먹, 평상, 회의용 이동탁자 등 모두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이태경(39) 양정여고 교사(중국어 전공)는 아이들에게 변화의 창조자 ‘체인지 메이커(Change-maker)’로 통한다. 교실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아이들과 시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학교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 지난 2012년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해커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아이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란 깨달음

으로 시작된 변화다.

변화를 창조하는 아이들이 되다

처음엔 동아리였다. 5명의 아이들과 ‘ITGirls’를 만들고 학과 탐방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던 중 삶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책’ 소셜벤처를 만나면서 아이

들은 직접 강연회를 기획했다. 15명의 사람책을 섭외하고, 200여만 원의 후원을 받아 제1회 도시강연회를 열었을 때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성취감을 맛봤다. 이후 매년 강연회를 여는 별도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



01 체인지 메이커 활동은 수업의 지식과 삶을 연결했다. 미술수업 시간에 만든 학교 로고

02 교내 부서진 담벼락에 그린 나비 벽화

03 학교에서 누구나 프린트할 수 있는 인쇄서비스

04 양심으로 운영되는 공유우산 대여

05 매점 앞 교통안내 표지를 그리자 흔잡한 풍경이 사라졌다.

06 학교 텃밭 거름을 만들기 위한 지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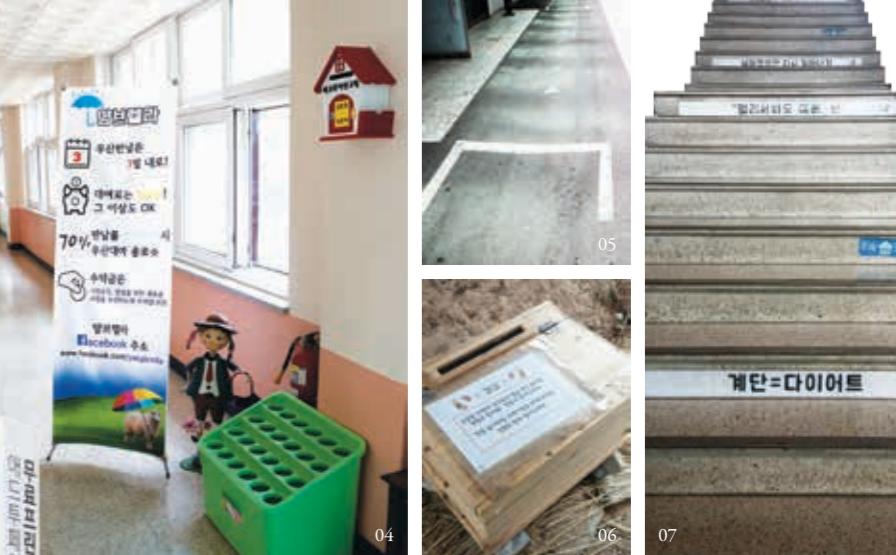
07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계단 문구

하는 아이들로 동아리는 8개로 늘어났다. 학생인쇄서비스 동아리, 플리마켓 동아리, 분실물찾아주기 동아리, 동물원관문화 개선동아리, 공유경제동아리 기억(ㄱ)이 대표적이다.

“자신만의 프로젝트, 친구들과의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들을 동아리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삶과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에는 직접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 개 동아리가 3년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힘입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시도한 첫 사례는 ‘학교 앞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다. 학교 앞 분식집 사장님의 경영 어려움을 돋기 위해 아이들이 나섰다. 분식점 현황을 조사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싸지만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공모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 교사의 말처럼 아이들은 스스로 ‘체인지 메이커’가 됐다.

‘체인지 메이커’는 점점 늘어났다. 무료프린팅 스타트업에 사업제안서를 보내 인쇄솔루션을 제공받고 학교에서 누구나 프린팅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생인쇄동아리. 그 수익금은 나무심기 단체 등에 기부한다. 공유경제동아리



그은 양심으로 운영되는 공유우산 대여사업이다. 교내 공유문화를 이끌다가 그 수익금으로 여성용품/티슈 자판기를 설치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안 쓰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 동아리는 교내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이제는 전국 학교로 보급하기 위한 키트도 제작 중이다.

학교 안 ‘체인지 메이커 학교’ 열다

2014년에는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

로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 안 ‘체인지 메이커 학교’를 만들었다. 주변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교육과 소정의 지원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OEC, 동그라미재단, 아쇼카코리아, 어썸스쿨 등 외부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주 1회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돋는다. 8개 팀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200여 명이 넘는 50여 개 팀이 지원, 이중 27개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 학년의 2/3 이상이 ‘체인지 메이커’에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부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

신의 내면을 깨닫고 표현하는 활동이 더해졌다. 교육부 대안교실 지원비를 받아 예술가 10명을 초청, 건축, 작곡, 드로잉, 도시예술, 컬러테라피 등 예술 창작교실을 열었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해도 되는 환경을 주고, 그 안에서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자기 경험과 통찰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흥망하는 학생이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대안교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에 자부심을 느꼈다. 변화의 바람은 각 교과와 연계되며 수업의 지식과 삶을 연결했다. 일례로 작가, 아나운서,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국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다. 정기구독자가 1,700명, 누적 청취자는 8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는 인근 학교와 연계한 프로젝트로 협력적 리더십을 기르고 있다.”는 이 교사. 그는 오늘도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날을 꿈꾸고 있다. ☺

전북교과통합체험학습연구회

“학교 밖 학교로 체험학습 떠나요!”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통일을 위한 염원을 담은 ‘아직 끝나지 않는 독립운동’ 연수는 전북교과통합체험학습연구회 선생님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연수였다.

중국 동북 3성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만주 4000km 대장정을 9박 10일 동안 달리고 직접 걸어서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교과서에서만 배우고 가르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삶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북교과통합체험학습연구회는 2014년 1월 장현근(교과통합 답사전문가) 씨가 개발하고 진행한 밭해만 요하기 행을 다녀온 연수단 22명이 교과통합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연구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조직된 연구회다. 현재 초·중·고 교직원 38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밭해만 요하기행을 시작으로, 전주의 자연과 문학·역사기행, 동진강 수계 따라가는 정읍, 김제, 부안의 자연생태와 문화·역사기행, 실학 따라 동학 따라 떠나는 사상과 문화·역사 기행, 남한산성·여주 일대 교과통합체험학습, 노사학파를 따라가는 항일의병투쟁 기행(전남 장성, 담양, 순창) 등을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3차례에 걸려 독립운동사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회의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에 나눔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을 배경으로 ‘강 따라 떠나는 인문학 기행’을 기획하여 내 고장의 자연과 문



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도 활발하다. 전주예고 조성자 교사는 지난 5월경 인문학 사랑방 동아리 학생 22명과 함께 학교 근처 모악산을 중심으로 ‘모악산 숲 체험’을 진행하는 등 생태주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여고의 김희영, 박정애, 손효문 교사는 1~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강화도 일대의 자연과 문화·역사 교과통합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역할을 고취하고자 오는 7월 9~10일 이틀간 인문학 캠프를 연다.

이용숙 회장(전북 김제죽산초 교사)은 “연구회에서는 그동안 전국을 ‘학교 밖 학교’로 정하고 문화와 역사, 인물과 사상, 자연생태 등에 대한 연수와 체험활동을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사회·문화·역사 교과통합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생님들이 소속 학교에서 현장체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교과통합체험학습을 확산시키고 지역내 학생과 시민을 위한 교육기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지역 : 전라북도

대상 : 도내 유·초·중·고 교직원 중 관심 있는 교직원

대표 : 이용숙(전북 김제죽산초 교사)

063-546-3302 / cbm1217@hanmail.net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회

‘예술’로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을 꿈꾸다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회는 2014년 여름, 경남의 곳곳에서 모인 몇몇의 선생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2016년 1월, ‘아카모니’라는 활동명칭과 함께 발족되어 현재 경남교육정보원의 정식 연구회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아카모니는 음악의 즐거울

락(樂)과 영어의 하모니‘Harmony’를 결합한 단어로 ‘조화를 즐기다’라는 뜻을 시작으로 ‘예술로서 함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회는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이 공식 후원하는 「대한민국 교권침해예방 감동극복 수기 및 창작스토리 공모전」과 「경남쇼콰이어 UCC 합창경연대회」를 개최·운영 중이다. 특히 스토리공모전의 수상작을 중심으로 교권침해예방 교육뮤지컬 『선생님을 부탁해!』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교육부 지역연계 예술교육활성화 수업연구회 사업에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역극단과 함께 수업현장 내에서의 교육뮤지컬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원 관현악지휘 역량강화 및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예술지도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밖에도 해외예술봉사단을 조직, 8월 둘째 주에 필리핀 일로일로市로 문화예술봉사 사전답사를 떠난다. 현재



필리핀영사인 하용만 교수(동의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문화예술교육포럼에도 참석하며 글로벌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를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회 안에는 교원으로 이뤄진 경남교원필하모

닉오케스트라와 경남지역의 초·중·고 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경남교원유스오케스트라가 있어 경남지역의 대극장을 돌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회는 경남문화예술교육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자료로 수집하고 지역사회의 문화행사를 알리고 교육현장의 문화예술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위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교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남문화예술교육 아카모니 기자단’을 발족, 『월간 아카모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경남의 문화예술교육의 단위 연구회지만 경남의 교육현장 속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시키고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예술교육연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

글_ 김세훈 명예기자(김해중앙여중 교사)



지역 : 경상남도

대상 : 도내 유·초·중·고 교직원 중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교직원

대표 : 박종화(김해고 교감, acamoni@acamoni.com)

홈페이지 <http://acamoni.modoo.at/>

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 교육의 힘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얘기할 때 교육을 핵심 동력 중의 하나로 꼽습니다. 각 단계별 산업 발전과정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교육정책을 세우며 쌓아온 경험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눌 뿐 아니라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소개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교육,
한-불 교육협력 속도 붙는다

아프리카에 솟는 희망의 땅,
베어프로젝트

비정부기구(NGO)
한마음으로 아프리카 지원

국제사회 리더로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ECD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교육, 한-불 교육협력 속도 붙는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교육의 힘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국빈방문 기간 중 두 나라 간 교육협력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6월 3일 양국 수장은 정상회담 후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미래 세대 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 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날 후속 조치로 ‘한-불 교육협력 의향서’와 ‘상대국 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한 두나라는 △상대국 언어 교육 활성화,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류 활성화, △방학기간을 이용한 상호 교사 교류 추진, △교류협력 의향서 이행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프랑스 초·중등학교 내에 한국 국제섹션을 설치·운영하고, 한국 학교 내에 프랑스어 교육 진흥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어수업 받는 프랑스 학생

프랑스 초·중등학교 내 국제섹션(Section internationale)은 이동식 특별 교과 수업 형태의 정규교과다. 언어, 문



프랑스 한국고등교육 홍보전시관을 방문한 이준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과 비언어 교과목(역사지리, 수학, 과학 등 중에서 1과목 선택)을 이중언어로 수업하는데, 내년에는 기존 개설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총 19개 언어의 국제섹션과 더불어 한국어가 신설된다. 지난해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데 이은 성과다. 이를 통해 국제섹션이 개설된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수업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섹션을 이수하면 바칼로레아 시험에 이수 결과가 기록돼 프랑스의 유수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제섹션과 별도로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반(한국 아뜰리에)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34개 3,100여 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지만, 내년에는 4개의 한국어반 추가 신설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원)생 교류 등 MOU 체결 활발

대학(원)생의 교류도 눈길을 끈다. 현재 한-불간 유학생은 꾸준히 늘어 한국 내 프랑스 유학생은 총 1,07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연간 130명(양국 각 65명)의 대학(원)생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교류하는 ‘Coree-France 130(C-F 130)’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는 ‘한-불 학위상호인정 행정약정’을 채결해 양국에서 취득한 학위(고등학교, 학사, 석사)를 상대국에서 인정하고, 학위 취득 전 양국 대학 간 편입과 석사학위 논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국 박사학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사학위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상대국 석사과정 입학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고등교육을 발전을 위해 매년 한-불 고등교육포럼을 개최하는 등 학문 교류와 공동 연구 개발 협력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 체결된 ‘한-불 직업교육 분야 공동의향서’를 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교육의 힘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국빈방문 기간 중 두 나라 간 교육협력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거로 양국 간 학생 현장실습을 비롯한 직업교육 교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호주, 독일, 싱가포르, 핀란드 등 4개국과 방학기간 중 교사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프랑스와도 교사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도 프랑스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 한국학 거점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기숙사 건립

프랑스에 유학 중인 한국학생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유럽에 교육한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

관(Maison de la Corée)’이 건립된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0명 내외의 유학생이 거주할 252개 사생실과 200명 규모의 공연장, 식당, 세미나실, 전시실, 사무실, 휴게실 등 다양한 부속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기숙사는 한국 유학생에게 70%, 타국적 유학생에게 30%를 배정함으로써 다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1969년 이후 40여년 만에 한국관 건립을 제안하였고, 국제대학촌 내 2,600㎡ 115억 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일 파리 국제대학촌에서 열린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한국관 건립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파리 국제대학촌

파리 국제대학촌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적·미래지향적 기반 조성을 위해, 1920년부터 오노라(Honorat)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주도로 조성된 다국적 기숙사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20개, 제2차 대전 이후 1969년까지 17개 등 현재까지 총 40개관이 건립돼 있다. ’66년에는 140개국 1만 2,000여 명의 유학생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이들 중 현재 입주한 한국 학생은 18명이다.



한국관 조감도 전경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서 개최된 한국관 착공기념식

아프리카에 솟는 희망의 땀, BEAR 프로젝트

글_ 설세훈 교육부(UNESCO ED/PLS/MLS 고용휴직 중)

“곰(BEAR)이 아프리카에 있기는 한 건가?”

이 질문은 2014년 11월, 고용 휴직으로 파리 UNESCO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섹션으로 가기 전에 문득 떠오른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프리카에 곰은 없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UNESCO와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와 협력 하에 우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곰’과 같은 사업이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 직업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가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UNESCO BEAR 사업 팀의 리더로서 1년 6개월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간 동안 BEAR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서 얻기 힘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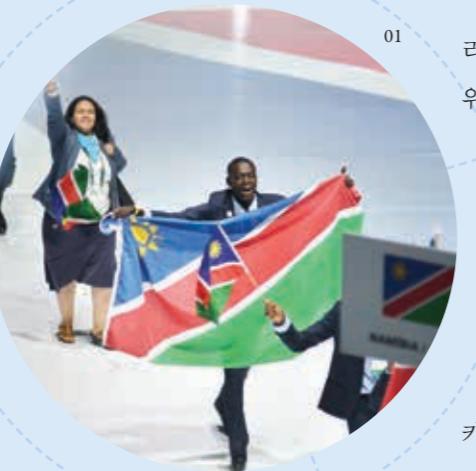
BEAR 사업이 성공을 거뒀던 이유

우선, 아프리카 출장에서 현지 사업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다. 2015년 2월, UNESCO에서 근

리카 공화국이나 보츠와나 등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는 최소 12시간 이상 비행기로 가야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넓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니 사실 많이 긴장도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묘한 흥분도 느낄 수 있었다.

2일간의 워크숍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현지 코디네이터들과 상견례도 하고 그간 BEAR 사업을 통해 얻은 각국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이 남는 것은 보츠와나 현지 코디네이터(Mr. Raymond Doherty)가 BEAR 사업을 통해 보츠와나가 거둔 성공 사례와 BEAR의 독특한 사업 전략에 대한 발표였다.

Mr. Doherty는 먼저 “사실 BEAR 사업의 목표는 10년 전 유럽 국가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목표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같은 것을 다시 BEAR 사업의 목표로 정했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면서, BEAR는 기존 유럽 국가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달성하지 못한 성



01



02



03



04

01 나미비아 최초로 세계 기능경연대회(2015) 참가

02 말라위 현지 전문가 역량개발 워크숍

03 04 짐바이아에서 개발된 교과서로 실제 수업하는 모습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우리가 BEAR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택한 방향이 향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형 ODA 사업은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당사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15년 8월 콩고 민주공화국(D.R.Congo) 킨샤사에서 BEAR 사업의 첫 번째 핵심 과제인 교육과정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했던 워크숍 때의 일이다. UNESCO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 국가를 5등급으로 나누고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은 국가일수록 안전이 취약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D.R.Congo는 동 기준으로 현재 4등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츠와나 등 다른 BEAR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나라라고 이야기 할 수 있

자생적 힘을 길러주는 BEAR 사업

파리에서 16시간 비행기로 달려와서 난생 처음 아프리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현지 사업담당자들로부터 BEAR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Mr. Doherty의 발표 이후, 다른 현지 코디네이터들도 Mr. Doherty의 얘기에 동감하면서 자신들도 그 점이 BEAR



05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 직업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 그러나 콩고는 영어가 아닌 불어권 국가로서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영토가 넓고 인구도 7천만에 이르는 아프리카 대국이다. 다만,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은 380\$로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에 해당하는 나라이지만 발전 가능성 면에서는 기회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8차선 구간에서 트럭과 버스 등 무질서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 아무렇게나 버려진 엄청난 양의 쓰레기, 그렇지만 그런 무질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웬지 모를 역동성이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프랑스 UNESCO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D.R.Congo는 지역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D.R.Congo가 우리나라 BEAR 사업의 대상국가이었고, 그리고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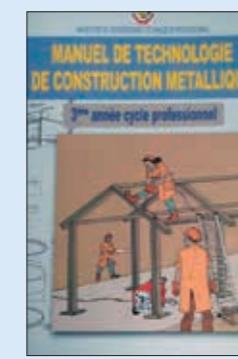
의 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들이 BEAR의 핵심과제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 워크숍을 개최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도움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별도로 D.R.Congo에서 처음으로 전기 등의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사업팀이 UNESCO에 전달하고 UNESCO는 다시 이를 D.R.Congo 정부에 전달하는 기념식 자리는 감명 깊은 자리였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과서가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상황 하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콩고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던 사업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BEAR 사업이 콩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그림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그림을 D.R.Congo 유력지에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가 직접 그려서 교과서에 삽입하였다는 점도 상당히 감명 깊은 사실이다. 행사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세미나에서 BEAR 사

업에 참여했던 콩고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같은 기관을 콩고에도 CRIVET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자고 함께 제안하면서 BEAR 사업을 통해 한국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룬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가들과 헤어졌다.

직업교육의 르모델로 부상

서로 부대끼고 호흡하면서 우리나라의 '정'과 같은 것을 콩고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BEAR 사업이 다른 국가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콩고를 포함한 아프리카 5개 국가에 한 번도 아니고 8번이나 방문하여 동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전문가들의 열정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날과 같은 감동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06



07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열렸던 UNESCO 총회와 집행이사회에서 직업교육, ICT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공헌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사와 이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한국교육에 대한 평가와 위상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UNESCO는 교육, 문화, 과학 등에 관한 UN의 집행기관으로서, 특히 교육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NESCO에서는 각종 회의가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와 집행이사회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영역은 교육과 관련된 주제이다. 특히 UNESCO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UNESC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서 UNESCO 내에서도 가장 주요한 행사이며, 이 회의를 통해서 2년간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된다.

2015년 11월에 열린 총회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BEAR 사업 참여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이 그간의 한국의 교육지원과 이를 통해 얻은 성과와 의미 등을 언급하며 감사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BEAR는 UNESCO에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회원국 사이에서는 BEAR는 곧 한국의 직업교육 사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유네스코 주재 일본, 중국, 그리고 북유럽 국가의 대표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BEAR 사업은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분야에 특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05 세계 기능경연대회(2015)에 참가해 기능을 선보인
나미비아 대표**

06 교육과정에 근거해 8종의 교과서를 개발한 DR 콩고

07 말라위가 개발한 교과서 샘플

**08 09 BEAR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현지의
주요 보도 모습**

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UNESCO 내에서는 BEAR가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UNESCO 홈페이지에서도 BEAR 사업 설명을 위한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UNESCO 사무총장도 UNESCO 직업교육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BEAR 사업을 언급하는 등 사무국 내에서도 동 사업의 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08



09

BEAR 프로젝트란?

BEAR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현지 기관과 전문가의 역량 강화 사업이다. 한국 교육부가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을 위해 2011년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추진한 첫 번째 다자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비정부기구(NGO) 한마음으로 아프리카 지원

글. 최미나 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 교육보건팀 팀장

니제르 콜로조고노 마을의 태양광 펌프를 연결한 식수 타워



굿네이버스는 기초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희망학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故 박용하 홍보대사와 함께 건립한 차드 요나 스쿨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희망TV SBS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 낭수단, 차드, 카메룬 등 총 10개국에서 46개 희망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학교 건축뿐만 아니라, 교육 기자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보수 교육 등을 진행하며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에서 짹트는 '희망마을' 프로젝트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위치한 니제르 함달라이 지역의 콜로조고노(Kollo Djogono) 마을은 지리적 접근

성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연중 극심한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는 곳이다. 이곳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사막의 극심한 모래 폭풍에 수시로 무너지는 학교는 재건복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한 채 하루 일과를 집안일이나 물을 길어오는데 보내고 있어 적절한 교육 환경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굿네이버스 니제르 지부는 마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마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지원을 손꼽았고,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온전히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 식수개발, 급식지원, 농업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굿네이버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빈카니로콜 희망학교(Binekanay Lokkol Hope School)'를 건축하고, 아

이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학교 급식을 지원하였다. 급식에 사용할 재료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학교



니제르 빈카니로콜 희망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

보니 사업은 '교육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희망학교가 곧 희망마을을 만든 셈이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교사가 양질의 교육을 만든다

굿네이버스 차드 지부는 차드 교육부와 협력하여 정규교사는 물론 교원자격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육 불모지인 차드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부족해, 마을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된 경우가 많다.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서 학교 건축과 같은 외형적 요건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규 교원자격증이 없는 대다수의 교사들을 훈련시켜 차드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 차드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 및 교육학(pedagogy)의 이해를 비롯한 다양한 교수법 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중심

으로 사업장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우수한 교원들이 차드를 방문하여 수업시연, 생활지도, 상담기법 등 다양한 수업 기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발전되었다. 차드 현지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등 보다 나은 수업 방법을 교사 스스로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5년 9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 실행된 차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교원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스스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었다. 다양한 수업 기법들을 직접 연구해 봄으로써 현장에 돌아가 아이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며 수업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 교사와 현지 교사의 교류를 통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 및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듯 교사들에게 찾아온 좋은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굿네이버스는?

&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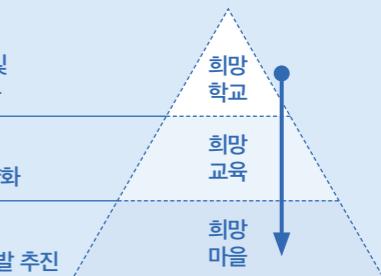
니제르 콜로조고노 마을에 세워진 빈카니로콜 희망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를 경청하는 차드 교사들

희망학교지원사업 Hope School Project

- 1 학교 건축 및 기능 극대화
- 2 교육서비스 확대와 다양화
- 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 추진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through Education
희망학교가 희망마을을 만든다

국제사회 리더로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글.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 국장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유아사망율 감소,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 등과 같은 국제사회 주요의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회는 1990년 태국 졸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세계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개도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교육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성취와 발전경험은 개도국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교육노하우를 배우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발맞춰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정부초청장학생 지원사업,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교원 해외파

[표] 분야별 ODA 규모

구분	교통	에너지	교육	보건	수자원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인도적 지원	기타
규모(억원)	2,591	2,150	2,013	1,672	1,854	1,978	1,571	461	5,189
비중(%)	13.3	11.0	10.3	8.6	9.5	10.2	8.1	2.4	26.6

* 교육분야 ODA 사업은 KOICA, EDCF 등의 교육사업과 통합

※ '16년 ODA 총규모 약 2조 4,394억 원(총 44개 기관 1,229개 사업 추진)

※ 교육부 ODA 규모 : ('15년) 582억 원 → ('16년) 643억 원

전 사업 등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교육ODA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ODA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해 왔다. 2016년은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중 교육분야는 2천억 원 규모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특히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학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한 한국형 교육

ODA 모델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개도국 대학 내 학과 설치 및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은 '12년 2개 대학(이화여대·포항공대)을 시작으로 '16년 기준 총 7개 대학((2013~2016년)에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단

포항공대가 구축한 에티오피아 아다마 대학의 재료공학과는 에티오피아 최초 학과이며, 우수학과로 인정받고 있다. 인제대학교는 스리랑카 전체 국립간호대학을 3년제에서 4년제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개도국 대학의 학과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그림>.

이와 함께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사업(GKS)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우수학생이 한국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본국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수원국 대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

에 이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교육 교

[그림] 학과(또는 단과대학)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



- 학과 개설 및 리모델링 추진
- 교육과정 컨설팅
- 교수 요원 파견
- 시설 개보수 지원 및 기자재 지원

교육ODA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라고 합니다. 약품이나 식량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교육ODA'라고 합니다.

문가들이 국가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한국방식을 반영하였다. 한국은 '15년부터 3년간 총 600만 불을 유네스코에 지원한다.

개도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87개 국가 교육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 교육의 힘 이야기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프리카 태양의 후예를 위한 컴퓨터 교실, 솔라스쿨을 아시나요?



솔라스쿨은 컨테이너를 개량한 이동형 교실로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장착하고 전자칠판, 컴퓨터, 노트북 등의 ICT 실습환경을 갖추고 있다. 솔라스쿨 사업은 2012년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DEA :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교육부, KERIS 등 교육 유관기관과 본행사를 후원했던 기업들이 교육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큰 아프리카 지역에 ICT 활용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원의 ICT 역량강화 및 학생들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다. '13년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에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16년에는 르완다, 모잠비크, 우간다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OECD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

글 김문희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공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만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보편화 수준을 달성한 나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교사, 학부모,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 등.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자면 위에 언급된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하

거나 신기해 하는 것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그것은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평가를 위해 그 시간대에는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들은 수능시험을 위해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신기해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편을 감내할 만큼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해 부러움을 갖고 있기도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의 성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대할 만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밑받침이 된 것은 부모님들의 자

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였다. 1960년대 초 당시 불과 두 자릿수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7천불을 넘어섰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결정하고 2010년부터 DAC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팔복상 대할 만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밑받침이 된 것은 부모님들의 자



녀교육에 대한 무한 열정, 훌륭한 선생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과 정부의 재정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얘기할 때 교육을 늘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1996년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에 가입할 당시 OECD 사무총장이었던 도널드 존스턴(Donald Johnston)은 한강의 기적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의 산출물’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갈망은 한국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OECD 국가 웰빙 지표(Better Life Index) 한국 보고서에서도 교육을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세미나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도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교육 수준의 양적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경제발전단계에 맞춘 인력양성을 담당한 교육시스템의 기여였다.

국제무대에 우뚝 선 한국교육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교육에 대한 접근

세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은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적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경제발전단계에 맞춘 인력양성을 담당한 교육시스템의 기여였다.

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초등교육, 70년대 말에 중학교 교육, 9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장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녀 모두 OECD 최고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세대 간 교육수준 향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 수준 비교에 있어서도 2000년 첫 번째 PISA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PISA 2012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PISA의 창조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11개 영역으로 구성된 2016년 국가 웰빙 측정 지표에서 교육부문의 우리나라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개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 웰빙 전체 순위는 38개국 중 28위에 해당되나 교육은 38개국 중 6위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과도 전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나라 그동안의 교육성과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모두가 부러워 하는 교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교육나침반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국어', '수학'과 같은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교과서'가 연달아 생각나는 분도 계시겠지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고, 무엇보다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통하여 현장 교사 출신의 전문직들이 가장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초·중등 교육과정 정책의 총괄 부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과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교육부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난 2015년 9월에는 창조경제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활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제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선생님들의 원활한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해 교원 연수 추진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의 개정 교육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교과서를 꿈꾸며 오늘도 고민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교육과정과 세상을 만나게 하는 다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 과는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실천'이라는 더 깊은 맛을 더해 교육과정과 세상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완전체를 지향하는 교실수업과 평가방법 개선, 활동·체험 중심의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디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느리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불어 초·중등학교의 내실 있는 학사 운영 지원, 교과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 등을 통해 더 나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부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운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닌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제고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예술 교육을 내실화하고,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및 대회 개최, 자기 생명보호 능력 배양을 위한 초등 수영교육 실시, 학생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지원 등 그야말로 학교 체육·예술 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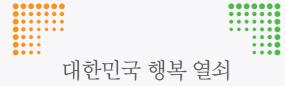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구심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융합교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팀의 명칭에서 알 수듯이 이 부서에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교육 관련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해 학생들은, 과목 간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다른 것에서 연관성을 발견'하고 '협동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도록 활동과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바꿔가는 것도 이 팀의 일입니다.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과정·참여형 수업을 도입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문학 등이 융합된 창의형 과학교육 환경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맞춰 초·중등 SW교육을 필수화하고 SW교육 인프라 구축 및 SW교육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만 졸업 하더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중심의 실생활 영어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교육과정정책관은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부서입니다. 교육과정정책관의 '오늘'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입니다. ☺



교육개혁

국민행복 교육개혁 성과 쑥쑥



자유학기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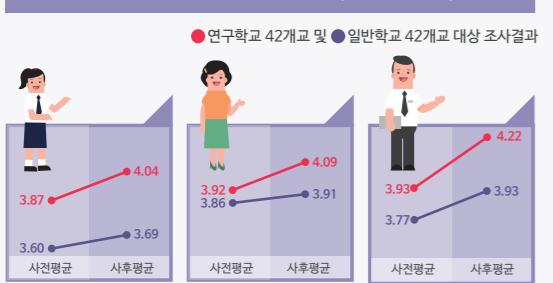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몰랐던 제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공교육정상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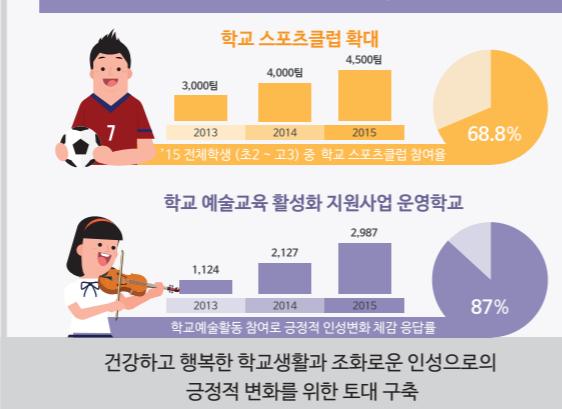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특기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학업 중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수업 태도도 좋아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15년 2학기)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서비스는 지방교육재정을 사전에 적극 공개하고, 주제를 시각화·맞춤형 정보로 제공하여 지방교육재정 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머니투데이 ('16.1.17.)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통 ('15. 12.)



개별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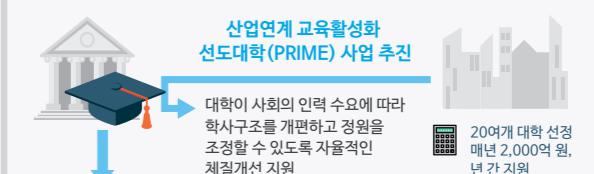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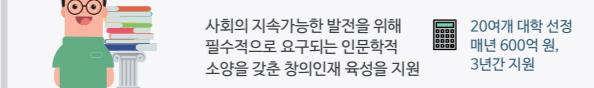
융복합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추진



대학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한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 확대

일학습병행제 확산



학생들을 직접 데려다 교육을 시켜보니 의욕도 높고 성실하여 잘 가르치면 우리 회사의 핵심기술인력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기업 대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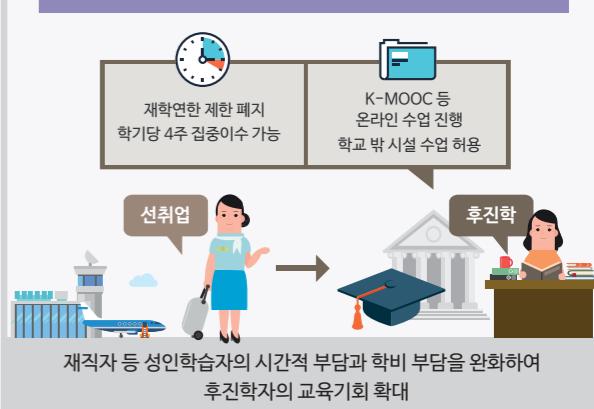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한 저는 27살이 된 지금 안정된 직장과 아파트,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선취업 후진학은 인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직장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후진학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체제 개선



먼저 취업하고 가고 싶을 때 대학 간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제도 뒷받침 듣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5.8.6. 답화문 中)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특성화 고 내실화,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취업 확대

정부부처가 연계해 특성화고를 더욱 내실화한다. 산업분야별 관련 부처가 성장동력 산업, 구조적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부처의 특성화고 지원은 지난 ’12년 123교, 249억 원에서 ’15년 230교, 41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중등직업교



육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해왔던 마이스터고 지정·육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지역전략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내실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분야별 현장에 적합한 핵심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체계적인 산학협력에 기반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영마이스터 양성이 가능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정·육성하고 있다. 1~11차에 걸쳐 총 47교를 지정하였으며 ’16년 3월 현재 43교를 운영 중이고, 4교는 ’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6년 50교까지 마이스터고 지정을 완료하고 철저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진학 확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취업의지,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직업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 중학생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

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성적보다 취업의지를 반영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및 전입을 확대한다.

진학보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에게도 직업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방송제작, 의류디자인 등 서비스 업종으로 위탁교육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학교, 폴리텍대에서 전문대학까지 위탁기관을 다양화한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용인원은 ’12년 10,274명 중 7,385명(72%)에서 ’13년 11,057명 중 8,879명(80%)→’14년 11,530명 중 10,532명(91%)→’15년 12,533명(95%)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진학 시스템

표1.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대학

대학	운영학과(학위과정)	모집인원 (정원내/외)
대구대	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재활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	200 (60/140)
명지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188 (42/146)
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수산식품냉동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200 (60/140)
서울과기대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웨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지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	240 (72/168)
인하대	메카트로닉스, IT융합, 헬스디자인, 서비스산업경영, 금융세무재테크	198 (11/187)
제주대	건강뷰티항상학과, 관광농업융복합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154 (40/114)

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표1>. 그동안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운영체제로 인해 평생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평생학습자를 전담하는 단과대학 신설과 평생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16년 예산은 총 300억 원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 30억 원内外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평생교육단과대학에서는 후진학자와 30세 이상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며, 2016년 9월부터 학점 인정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우선 실시하고 2017학년도부터 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학위과정에 한해 3월 학기 외에도 9월 학기 모집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후진학자와 평생학습자의 교육 접

근성을 높이기 위해 K-MOOC 강좌 활용 수업, 집중이수·아간·주말 수업 개설, 학교 밖 시설 활용 등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후진학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체제를 개선한다. 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사내대학 등 대학 내 후진학 제도를 다양화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학이 기존에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후진학자 전담 학과를 신설·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표2>.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 등을 위한 학칙 개정을 유도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도입·운영한다.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선발비율도 확대(4% 이상 → 5.5~11%까지 선발가능) 한다. 특별전형 대상도 ’16학년도부터 기존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전문반·직업교육과정 위탁생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 선정 등 학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②

표2. 후진학을 위한 대학체제 개선

장애 요인	현 실태	개선 내용
시간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연한(통상 8년) • 수업일수(연 3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연한 제한 폐지 • 집중 이수(학기당 4주) 가능
지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수업만 학점 인정 • 오프라인 수업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시설 수업 허용 • K-MOOC 등 온라인 수업

“나의 선취업 후진학 성공기”

큰 꿈은 더 큰 나를 만든다

김소은(중문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선택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의 의견이 아닌 제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시작해 나갔습니다. 3학년이 되자 다양한 공기업 취업자들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슴없이 몇 개의 공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의 선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입사지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어느 한 곳 쉽게 연락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원한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특성화고에서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공기업 최종합격이라는 행복도 잠시.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배워온 내용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한 송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김다인(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제 어린 시절 사이사이에는 항상 먹구름이 둉쳐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곧 재혼하셨지만 새아버지와 또 한 번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겐 8살 어린 늦둥이, 이복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훌로 저희 삼 남매를 키우시느라 바쁜 어머니를 도와 저는 항상 늦둥이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언제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저는 굳은 다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지!’

구름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지나 점점 성장해 갈수록 제겐 어두웠던 어제보다, 따뜻한 오늘의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항상 재미있어 하는 과목은 미술이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신감이 커졌던 과목 또한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미술과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로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고 이를 살려 취업할 수 있는 학교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취업이라는 저의 목표는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그때쯤 저희 동생에게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항상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택배는 저희 지역 복



지관과 연계된 삼성화재의 후원선물이었습니다. 택배 안에는 아기자기한 선물들과 삼성화재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손수 써주신 손편지가 함께 담겨 있었고, 그 정성어린 손편지에 매번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취업하고 싶은 꿈의 기업을 삼성화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삼성 상반기 고졸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화재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진심을 듬뿍 담아 답변했습니다. 면접관들께서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셨는지 날카롭던 표정들이 모두 따뜻하게 변했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최종합격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구름이 가득해 어두웠던 제가 예쁜 꽃이 가득한 꽃밭으로 바뀐 것은 꾸준한 준비와 진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여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소한 법률용어와 다양한 소송서류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과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한 것이 아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업무에 필요한 법률용어와 소송서류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몇 자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노력을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노력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입사한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를만 들어도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서 중앙대학교 지역경영학부에 입학하여 경영학사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 이 글은 제4회 고졸취업 성공 수기 공모전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부문 수상작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흙수저 탓만 할 순 없잖아요

최연경(누네안과)

최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부모님의 능력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일컫는 말이란다. 어쩌면 나도 그 흙수저가 아닐까?

대구의 끝자락 동구. 그곳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광역시’라는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느 한적한 동네에 우리집이 있다. 시골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초막집에는 우리가족 5명이 산다. 일용직 노동자의 삶으로 꾸준한 경제적 수입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그야말로 ‘흙수저’의 삶이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앓다가 자연스레 지나가 버린 감기부터 혹여나 큰 병이 있을까 두려워 건강검진조차 받기를 겁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보건간호과에 가면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구남보건고등학교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전문교과와 일반교과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체계가 잡혀 있는 구남보건고등학교에서 3년간의 고교생활을 통해 자격증과 지식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 마침내 3학년이 되었을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처럼 평탄하게 취업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병원에 입사 하니 3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이 다수였다. 다른 곳에서 이미 일했던 경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려니 사실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친절하게 환자들을 응대했고 전산 관련 분야는 빠르게 습득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이든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에게 기계조작법이나 병원일에 관해 물어본다. 내가 그들을 가르쳐주는 위치에서게 된 것이다. 아무도 나를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부정적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장님은 그런 나에게 장기근속자 우수표창장이라는 귀한 상도 주셨다.

누군가는 아직도 ‘실업계고등학교’, ‘고졸자’라는 타이틀로 그 사람의 한계를 만들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몸담고 있는 자신들이다.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내 기방끈보다 내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신감이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노라고. 고졸이라고 뒷걸음 칠 필요 없이 당당히 맞설 때 앞서 세상을 헤쳐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 대학 총장들과의 대화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에 교육부 최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발전 모델 구축과 강점 분야 중심의 기능 개편 지원

총장들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메모를 이어나갔다. 혹시 한마디라도 놓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는 중에도 재차 확인했다. 총장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수용할 것은 하고, 설명할 것은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총장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 높은 고등교육의 혁신이 요구되는 변혁적 시기에 교육계의 수장과 대학총장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국립대학 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

이준식 부총리는 국립대 및 사립대총장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국립대학 발전

방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이 부총리가 제시한 방안은 대학과 지역 특성에 맞게 국립대들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들이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방식을 모색 중이다.

국립대학 간 학부·학과·연구소 간 교류 및 협력을 중심으로 대학 간 기능 조정을 지원하고, 복수의 캠퍼스가 있는 국립대학은 캠퍼스 단위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 간 통합이나 정원 감축을 통해 국립대학 간 통합하는 형태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대학총장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행사장 전경

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

이 부총리는 장기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총장들의 건의에는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대학 측에서도 국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23일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총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확대를 적

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별로 이뤄지는 대학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에 맞

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주기가 시작되는데 수준 이하의 대학을 골라내고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예정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총장들과 20~30명씩 분과를 나누어 브레인스토밍 하듯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때에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꺼이 교육부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문답.

충남대 오덕성 총장_ 국립대학 발전체계 구축과 관련된 대학의 핵심 발전전략과 정부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립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대학 간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 협력과 강점 분야 중심의 기능 조정을 통해 대학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기존 통폐합 대학은 소규모 캠퍼스 기능특성화를 통해 대학 내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요. 국립대학이 실질적 협력과 기능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연합체제를 구축하도록 국립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각자의 강점과 특성을
가진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산학협
력의 지역 허브로서 창조경제와 교육개
혁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국립대학
의 자발적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립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의 기능 개편
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산대 나의균 총장 현재 학교기업은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어렵고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기업
이 법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의 활동
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수익활동을 병행



군산대 나의균 총장



충남대 오덕성 총장

하는 교육기관의 일종이므로 산촉법에서
는 학교기업을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비
회계의 세입은 학생의 수업료,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입
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도록 하여 교비회계가 교육 이외의 목적
에 쓰이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
니다. 다만 산촉법에서 교비회계 또는 산
학협력단 회계의 10% 범위 내에서 학교
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이 법인격을 갖게 된다
면, 교육목적에 쓰이도록 되어있는 교비
회계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학교기업이 법인격
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지요.
다만, 대학이 기업활동 및 수익창출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학교기업 운영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대
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경인교대 이재희 총장 미래형 교사 양
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원
양성대학 중 일부 대학만 선별하여 선도
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기본 경비의 일부는
모든 초등교원양성대학에 동일하게 지원
하고, 나머지는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차
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
면 합니다.

미래형 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원양성대학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합니다. 7~8월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
화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 재
선정평가(신규 사업단 포함)가 실시될 예
정이므로, 미래형 교사 양성을 고민하는
많은 교원양성대학이 금번 평가에 참여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 분석 및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여 별도의 교원양성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이재희 총장 국립교대 학사정
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시급히 교체
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재정인 국립 교
대에서 학교재원만으로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학업무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고 판단, 국고지원(62억 원)이 필요한 실
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대 학사정보시스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별로 구축
하였으며,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시스
템 기능·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이 매우 취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에서는 2017년 운영예정인 「국립대학 자
원관리 선진화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
려하여 「신규 교대 학사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하여 국고예산 확보에 노력하
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 수년째 등록금이 동
결 또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인상률을 나타
내면서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렵다면,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기본경비(경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
만, 교부금제를 통한 국고지원 방식은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
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 재정운영의 경직
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교부금에
의한 일률적인 대학 지원은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대학구조조정의 방향과 상충될
소지가 크고요. 교부금을 지원하게 되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오히려 사립대학의 다양성
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인교대 이재희 총장



원광대 김도종 총장

이준식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현
장을 찾아 교육관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왔다.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경
청한 그는 “대학 빌전을 고민하는 정도
는 누구보다 총장님들이 가장 깊을 것”

이라며 “우리 대학이 가진 근원적인 힘
을 믿고 대학의 혁신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
기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
가자.”고 당부했다. ②

행복한 꿈 문화로 날개를

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성황



장애·비장애학생이 장벽을 허물고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이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학부모 등의 어울림 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며 장애물 없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다함께 문화예술로 공감·소통하는 장이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교육이 확대되고 장애·비장애를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꿈, 문화로 날개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일반학교, 관련단체 등에서 120개 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참여자들이 문화예술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축전은 △문화예술체험관 △장애인식개선관 △특수교육관 △과학체험관 △특색작품관 △장애인체육체험관 △장애인 문화예술 포럼 △인문학 토크콘서트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이번 축전에서는 장애학생·비장애학생·교사·지역사회가 어우러진 음악 경연이 펼쳐졌다. 전남교육청에서 출전한 은광학교는 해군 3함대 군악대 장병 30명과 시각장애학생 13명이 한 팀이 되어 학교 밖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공감하는 특별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였다. ☺



01 한 학생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마련한 보조공학기기체험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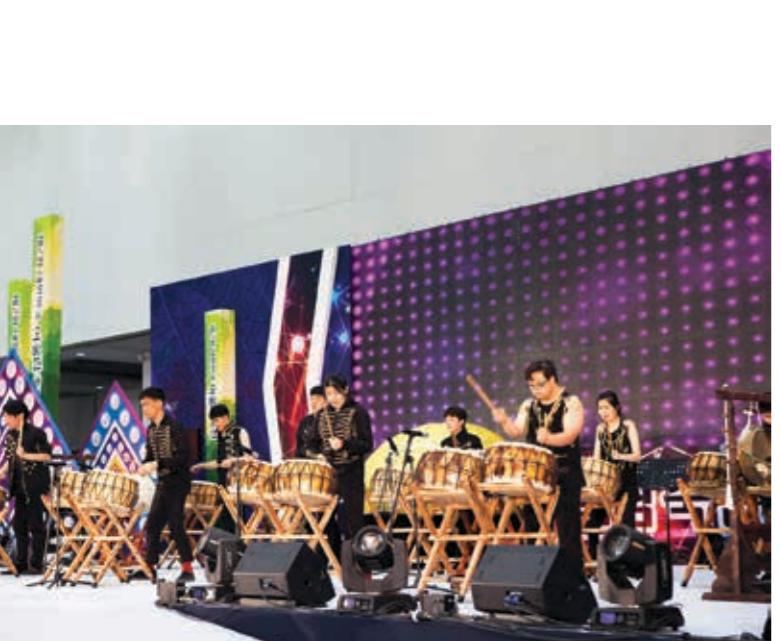
02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린 미술작품

03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이 열린 대구 엑스코 로비

04 장애·비장애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어울림 축전에 한 유아가 교사의 도움을 받아 견과류 포장에 도전하고 있다.

05 대한민국어울림축전 내부 전경

06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대구 남양학교에서 마련한 원예체험을 하고 있다.



10 정애·비장애 학생이 종이공예를 함께하며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있다.

11 특수교육관 내 국립특수교육원

12 대한민국어울림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내빈들

13 대구장애인체육회에서 마련한 운동기구

14 한 학생이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운목 화분을 만들고 있다.

15 전국 장애 이해 사진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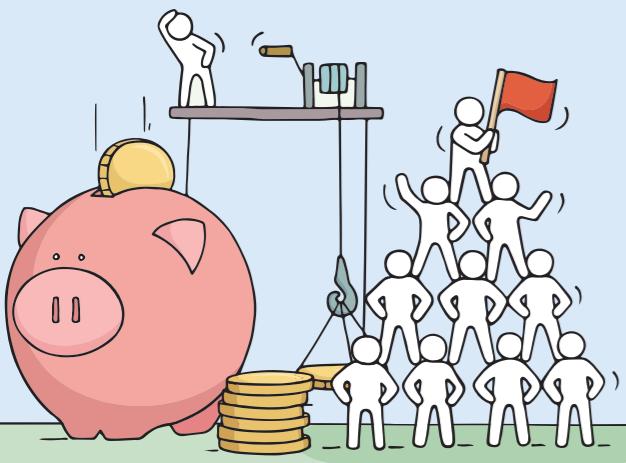
16 전남 은광학교 시각장애 학생들과 해군 3함대 군악대 장병들이 기악연주를 하고 있다.

17 “내가 만든 양초야~” 유아들이 자신이 만든 양초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창업지원

우수한 기술 = 성공적 창업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과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실패 위험은 낮추고~ 성공 경험은 나누고~

창업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가 대학 내에서 공유·축적될 수 있도록 대학생·졸업생·교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도 확산해 나갑니다.

대학 환경이 창업 인큐베이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 창업동아리 수	창업휴학제도 도입 대학
2012: 1,222	2012: 1
2013: 1,833	2013: 10
2014: 2,949	2014: 145
2015: 4,070 (기준)	2015: 200

2012년 대학 창업동아리 수는 1,222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4,070명으로 증가한 233.1%의 평균 연평균 증가율로 늘어났습니다. 창업휴학제도 도입 대학은 2012년 1개 대학에서 2015년 200개 대학으로 48%의 증가율로 확장되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과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학원 과정에 창업가정신 프로그램과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창업트랙 도입을 확대하고 대학원생 창업이 지도교수의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에 학생창업 실적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부, 중기청 등 부처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창업교육을 통해 검증된 인재에게 사업자금 지원, 창업보육 센터 입주 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난 '14년 247개 이던 학생 창업기업이 '16년 600개를 거쳐 '18에는 1,100개,

'20년에는 1,80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절 없는 창업교육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군(軍) 특성화반(16년, 13개교) 학생들이 입대 후에도 창업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학(원)생이 창업 시 졸업 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LINC 등)의 혜택을 유지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대학의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을 더욱 내실화합니다. 창업휴학제와 같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창업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

다. 특히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기반의 창업 교육·학습 기반을 조성해 창업 관련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창업교육 접근성을 높여갑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대학 내에 축적되어 있는 창업지원 제도 및 인프라가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17개 창조 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전국 100여 개 대학에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가 설치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지원제도와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교육논단

미래 인재와 소프트웨어 교육



유망 산업 전망을 통해 바라본 미래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유망 산업 전망을 통해 바라본 미래 교육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머니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갑자기 우리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 모두의 화두에 오르며, 마치 인공지능을 모르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좌절감을 주고 있다. 도대체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파고 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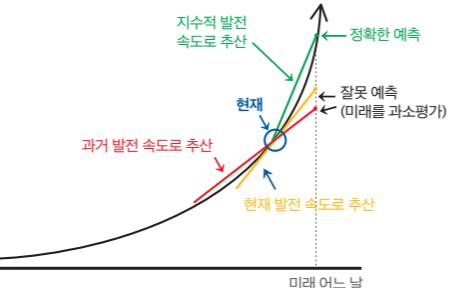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정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초기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여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주어진 데이터에만 집중할 뿐 추론을 하지는 못하였다. 알파고 이전의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으로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여 결과물을 제시하였으며 추론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빅데이터 세상이 되면서 규칙이 아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존재하고, 이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받

아 기계에 학습 기능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의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머신 러닝 중에서도 2개의 계층을 미리 학습하게 하고 학습할 때 제공되는 변수들을 임의적으로 생략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딥 러닝(deep learning)에 해당한다. 학습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딥 러닝 기반으로 인간과 기계를 SNS로 대화하도록 Microsoft사가 Tay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악함이 대화 중에 Tay에게 학습되었고 Tay는 엄청난 나치주의자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도움이 되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바둑이 서양권에서 낯선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선택한 이유는 바둑의 해결과정은 인간의 직관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세돌 9단에게 “왜 그곳에 돌을 두었는가?” 물었을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자신



의 경험에 따른 직관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고유의 영역인 직관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다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컴퓨터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공지능은 바둑을 도전 영역으로 선택한 것이다.

최상의 전략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미래 어느 날 인간 고유의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간은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기술적 특이점이 존재하게 되며 기술적 특이점은 기술 변화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져 인간이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뜻한다<그래프 참조>.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변화를 대비해야 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최상의 전략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다.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업 대상을 이해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공지능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S/W교육’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낼 인공지능 시대에 단순한 문제해결형 인재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컴퓨터와 협업하여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조명 받으며 전공 계열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자칫 단순한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적 과목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팅 사고력이고 논리적이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컴퓨팅 사고력을 문제

최상의 전략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다.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업 대상을 이해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공지능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해결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코딩의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고, 프로그래밍 구현을 통하여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에게 양보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자율 자동차 경우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의 시각적 판단과 직관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운전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며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준비된 자만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일원이라면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실에 안주하여 결국은 도태되어 버릴 소모품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미래의 인재로 교육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인공이 개발자에서 사용자로 패러다임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이상 컴퓨터 전공



김재현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성균SW교육원 원장과 컴퓨터교육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ICT기반 국가미래전략 네트워크 기술 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고등학교 「컴퓨팅과 직업세계」 등을 집필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며칠 전 자신의 사연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청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얹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시내 도로변에서 쓰레기통이 있었으나 쓰레기가 넘쳐, 길가에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을 보고 친구들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동으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젊음을 바탕으로 모두 힘을 모아 지능형 쓰레기통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태양열을 이용해 발전한 전기로 일정 부피의 쓰레기가 쌓이면 자동으로 압축하는 쓰레기통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해외로 수출하는 등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진실

과거의 도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는 컴퓨터는 무엇이 그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과거의 각종 도구들과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지금과 같은 변화가 가능할

까? 컴퓨터 이전의 도구들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이용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칼을 생각해 보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나무가 잘라지지는 않는다. 칼로 나무를 치는 행동을 직접 해야만 나무가 잘라진다. 나무가 칼질 한 번에 잘라지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칼질을 해야 한다.

컴퓨터는 어떤가? 컴퓨터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동작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에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물리적 장치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소통하는 언어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이에 맞춰 동작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다. 위에서 본 자동압축 쓰레기통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문제해결과 소프트웨어

그러면 컴퓨터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일까? 앞에서 본 청년 벤처 사업가의 사례를 보면, 우선 사물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 인식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 중, 이들은 압축쓰레기통을 생각해 낸 것이다. 다음은 압축쓰레기통을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태양열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압축

기능을 생각하고, 실제 설계, 개발, 시험 적용, 평가,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를 짧은이들의 꿈인 자동 압축쓰레기통은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밟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압축했다면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길거리의 쓰레기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꿈과 열정이라 할 수 있다. 길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짧은이들의 꿈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이

루어진 일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 융합적 접근

우리가 컴퓨터의 활용과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코딩하는 기계적인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상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화가 빠르고 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일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다 다르게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풍부한 상상력과 자신과 주변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과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과제나 문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는 열정을 그리고 이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적,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한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큰 성황인 적이 있었다. 많은 컴퓨터 학원이 문을 열었고, 가정 방문 교육 사업도 번창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시들해졌다. 당시의 프로그래밍 교육 대부분이 프로그래밍 기법과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우리가 컴퓨터의 활용과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또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학습, 친구들과의 교류, 가정에서의 생활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 또는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만들어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교육목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시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코딩 교육을 홍보하는 광고나 전단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들 사교육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라는 제약으로, 코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과거 한 때 성행했다가 쇠퇴한 프로그래밍 기능 중심의 교육처럼, 코딩 기능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을 기르는 교육이 되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 과거의 기능 중심의 프로그래밍 교육과는 달리,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모든 교육이 힘을 합쳐 꿈과 열정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활용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을 기르는 융합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❷



손병길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부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학교교육과 컴퓨터』(공저),『정보교육』 등이 있다.

다문화교육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모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 3월에는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다문화 유치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뜨락에 피어난 나눔 향기는 사랑 타고 솔솔~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1일 올해로 3번째인 『다문화 사랑나눔 각 국요리 팜파티(Farm Party)』를 열었다. 다문화가정, 결연가정 및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필리핀·베트남·중국·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각 나라별 다문화가정 부모를 강사로 초청하여 자국의 음식 재료의 특징과 비법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며 자녀 교육을 위한 노하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등 생활 속 소소한 정보들을 나누는 소통

의 장이 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결연가정 아이들은 뜨락에서 닭싸움, 수박씨 멀리 뱉기, 꽃잎 및 풀에 사는 곤충 관찰하기 등 한 국의 농촌 놀이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라별로 정성껏 만든 음식 룸바띠(필리핀), 월남쌈(베트남), 중국 냉채와 만두(중국), 전과 불고기(한국), 각종 과일 등을 담아 차린 후 다양한 음식을 보고 맛보며 사랑 가득한 팜파티(Farm Party)도 즐겼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결연가정 학부모는 나라별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며 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고 하였다. 아울러 강사로 참여한 학부모는 자국의 음식을 소개하며 그 나라의 식생활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한국 음식문화 체험을 넘어 자국의 음식문화를 결연가정 부모들과 함께 나누며 자국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한국 속의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는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좀 더



어버이나라 자긍심 길러 당당한 한국인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다문화학생 어버이나라 자긍심 함양교육'을 다문화교육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다문화환경을 드러내기 거리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학생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존감이 떨어져 다문화 환경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문화학생 어버이나라 자긍심 함양교육'의 주요 교육활동으로는 어버이나라 언어교육을 위한 이중언어교실,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어버이나라 역사·문화 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학생이 소속된



학급에서는 월1회 20분 이상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학교에서는 연1회 이상 어버이나라 탐구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뮤지컬, 캠프 등의 활동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꿈 키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사회성, 재능, 자존감 향상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학생동아리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을 키우는 문화예술동아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책을 통해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볼링동아리, 그리고 학교 주변의 다문화학생을



생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볼링동아리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와 바다 문화 학생이 서로 어울림의 공간에서, 다문화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위한 맞춤형 교육

부산지역 다문화학생이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많은 초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5개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3곳을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해 개인별 맞춤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교육 지원으로 출생국가의 다양성을 고려한 한국어 수준별 교육을 위해 '다문화 독서교실'(23개교)과 '이중언어 수업'(54개교)을 운영한다.

아울러, 일반학생과 함께하는 '어울림 통합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어울림 교실'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학생이 있는 초등 30개 학급과 중등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다문화어울림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학생이 있는 학급을 대상으로 센터 방문형 다문화 이해교육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어울림 무지개교실, 중학생은 어울림 나르샤교실 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 학생의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첫 대상 학교로는 덕신초등학교 3학년 4반 학생 23명이 지난 4월 센터를 방문해 어울림 무지개교실 프로그램 첫 체험학습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친화적 학교 만들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학교현장을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학교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반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연구학교로 구분된다.

다문화 유치원은 다문화 유아에게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유아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여 유치원 단계부터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조기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 유치원 1개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5교의 예비학교(초 4교, 중 1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예비학교가 아닌 학교에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이 입학했을 때 해당 학교에 한국어강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예비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로 8교(초 7교, 중 1교)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학생의 언어, 학업 성취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학교는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및 공교육 진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 3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질적 현장 지원을 목적으로 다문화학생 전·편·입학 매뉴얼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밖 다문화가정자녀의 지원 프로젝트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18,876명(2015. 4. 1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란 학적이 불분명하거나 한국어 역량이 부족하여 편입학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공교육 진입 전에 한국어 및 학교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29교(초등학교 3교, 중학교 26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364명을 찾아냈으며, 181명이 다문화예비학교에 재학 중이다.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한국어(KSL)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 한국문화이해프로그램과 교과학습지원프로그램을 주당 5시간 이내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적응을 위해 예체능교과, 중국어, 스포츠클럽, 축제 및 체육대회 등에서 일반학급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급 학생과의 멘토링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진로직업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경기도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경기도다문화학력심의」는 경기도교육감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이 거부된 은둔형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만13세~18세)에 대해 다문화예비학교 수료 후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과 다문화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지원과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공감과 참여의 '다우리 다문화교육' 눈길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해 6,090명(2015년 4월 1일 기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중도입국학생과 초등 저학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맞춤형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교육 학교 확대, 이중언어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 교원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학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현장의

'다우리 다문화교육'이란 '다함께 어울려 우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충남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캐치프레이즈이며, 다문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 및 다문화정책 학교 확대, 이중언어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 교원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학부모교육 등의 사업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답으로 알아보는 충남 다우리 다문화교육」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편견 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다문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 ● 충남 천안동성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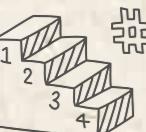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역량 키우는 행복나눔 교육과정



글_유정웅 교사

천안동성중학교(교장 유재홍)는 1961년 개교 아래 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사회학교이며,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나눔학교'를 학교비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바로 유명한 천안시 성환읍 외곽에 소재하고 있어 이전에는 배정을 선호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간 유대감이 깊다는 사립 학교의 장점을 적극 살려 다년간 학교 혁신, 교실혁신에 몰두한 바, 지금은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은 학교 중 하나로 변모하였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하여 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창의경영학교, 행복나눔학교(충남형 혁신학교) 도입과 더불어 수업혁신을 위한 많은 도전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꽂피울 수 있었고 지역의 다른 학교들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혁신

'학교의 고백', '학교란 무엇인가', '21세기 교육혁명'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송으로 보도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학교 교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마지노선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공교육이 미처 따라 가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외침 속에 사교육이 따라 할 수 없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

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 는 작은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책 읽기, 함께 걷는 교사 독서동아리-산책', '동성 행복수업동아리-동행', '교사 역량강화 동아리-더불어 숲'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참여중심 교실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발적 수업나눔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해외교육 봉사활동
-스리랑카 파무누아 중학교 자매결연



동성 행복수업동아리-동행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나눔학교'라는 학교의 비전을 세우기까지 아이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떤 가치들을 우선할 것 이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부터 접근해 점차 세부운영 내용까지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만들어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 T/F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겨울방학 동안 교육공동체가 학교의 비전 부터 세부운영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시 디딤돌을 쌓아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토의토론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도 있었고 또 더디게 돌아가는 일도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며 알찬 행복나눔 교육 과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비전과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고민들

'사랑과 열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나눔학교'라는 학교의 비전을 세우기까지 아이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떤 가치들을 우선할 것 이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부터 접근해 점차 세부운영 내용까지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학생상을 대표하는 인성, 창의, 진로, 감성의 4개 키워드를 도출해냈습니다.

(인성)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과 더불어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경청과 배려 그리고 나눔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 중점으로 설계했습니다.

(창의) 협력과 배움을 실천하고 성장하는 학생입니다. 배움중심 행복수업 운영, 수업나눔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인지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스스로 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중심 자율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꿈과 끼를 기르고 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진로) 진로와 가치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4년간의 창의경영학교 및 2년간의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 노하우

를 살린 DS2080 진로교육, 지역사회와 더불어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협력캠프 등을 통해 3개년간 연속성

이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감성) 심신과 감성을 단련하고 표현하는 학생입니다. 교과와 연계한 예술체험활동으로 공감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예술체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년 전체가 강당에 원형으로 둘러 앉아 소통하는 학년 전체 회의, 주간 학년임원자치회의, 리더십캠프 등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자치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배움중심수업 내면화

우리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학생이 수업의 주체이며 배움을 통한 학생의 활동을 수업의 중심으로 보는 배움중심수업의 내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움중



학생 중심 자율동아리-푸른환경지킴이



[그림] 미래핵심역량 키우는 동성 현장체험학습 흐름도



심수업은 수업에서 담아낼 내용 즉 어떤 배움이 수업에서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개념입니다.

배움중심수업 만들기의 핵심은 수업 설계에 있습니다. 교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텍스트 및 활동을 구안해야 합니다. 정형화된 수업모형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교사 자신만의 수업 모형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지도안도 교사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 형태로 작성합니다. 교사중심의 한 시간 화려한 보여주기 수업관찰이 아닌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수업관찰과 연구로 수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의 고장이라는 주제중심 프로젝트형 학습을 설계·운영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교과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학습 흥미도 불러일으키는 일석이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협력·봉사

사실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핵심역량의 개발은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에서만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학생을 전인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社会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3년간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설계 개발하였습니다. 단순 답사형태 현장체험을 지양하고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직접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로 창의성, 자기주도성,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기 말 취약시기에는 1학년은 자연, 2학년은 에너지, 3학년은 우



나를 돌아보고 꿈과 끼를 찾는 진로캠프

과정에 맞추어 ‘나⇒너⇒우리’로 이어지는 교육활동 단계별 확장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그림>.

더불어 교사 간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주제중심의 통합수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요소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학년별로 주제통합하여 융합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기 말 취약시기에는 1학년은 자연, 2학년은 에너지, 3학년은 우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배움중심 수업

수업지도안은 교사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 형태로 작성합니다. 교사중심의 한 시간 화려한 보여주기 수업관찰이 아닌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수업관찰과 연구로 수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 자치능력을 기르는 학년 다모임

업의식을 함양했습니다. 2학년은 친구와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미래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캠프 운영으로, 천안아산권역 내의 지역사회 삶의 현장을 모둠별로 방문하여 교과연계한 미션을 수행하고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키웠습니다. 3학년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꿈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봉사캠프 운영을 통해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나와 너를 넘어 우리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 의식도 함

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최우수교 선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2016년, 천안동성중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행복나눔학교로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더불어 성장하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새로운 학교문화로 전인교육을 실현하여 미래지향의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지면관계상 축약된 내용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미래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캠프



스스로를 혁신하는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최근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우수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고, 작년 7월에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가정신 교육¹⁾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대책의 내용은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교과에 반영하고, 교육 대상에 있어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경제, 2015). 이에 따라,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내용이 중·고등학교에 일부 제시되어 있고, 교육부와 KDI는 학교에 적용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기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비즈쿨(중소기업청),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교육부)과 학기술창업교육(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 영재기업인(특허청) 등이 있다(강경균, 이춘우, 2015). 이외에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지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

Entrepreneurship Education)'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 교육시스템 구축, 교사 지원, 학교에서의 기업 활동, 현장과의 연계 구축, 의사소통 활동 등의 영역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오늘로 아젠다에 제시된 영역과 내용은 유럽 각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실행 방안 개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창업 교육을 초등과정에서부터 의무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기업가정신

해외 선진국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2010)'를 제시하면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표] 유럽 위원회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세부 목표 (EC, 2012; 오해섭, 맹영임, 2014 재구성)

영역	목표 및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와 직업의 기회 • 경제문해와 재정문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기획, 팀워크 •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함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인식과 자신감 • 주도성, 위험 감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1) 현재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어를 살펴보면, '기회 포착', '도전정신', '자기혁신', '가치 창출', '도전 정신', '주인정신' 등의 역량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업가적 역량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창업 교육을 초등과정에서부터 의무 교과로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50개의 주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경연대회, 사업 아이디어 대회 등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 JA(Junior Achievement), NCEE(National Council of Economic Education, Kauffman Foundation,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DECA(The 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등의 비영리 민간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주도하여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기관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및 경

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국가를 만든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

일본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앞서 제시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독립된 교과목이 아닌 교과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창조가라는 명칭에 맞게 세계적인 창업국가로 정착하였고, 그 바탕에는 '후츠파(chutzpah) 정신'이 크게 기여하였다. 후츠파는 '뻔뻔하고 당돌한 놀라운 용기'라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스라엘 고

* <참고문헌>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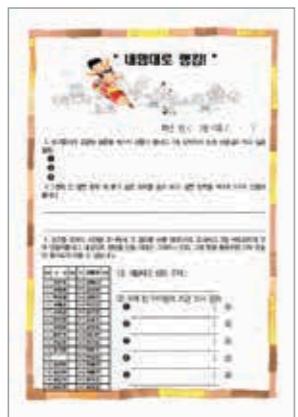
7월, 한 학기를 정리하는 보석같은 네 가지 교실 활동

7월은 공부하기 특히 힘든 달 중 하나다. 바쁘게 진도를 따라잡기에 급급하다가 정작 진도를 다 마치고 아이들과 마음껏 평소에 꿈꾸던 교육을 할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들이 가져온 영화나 보여준다면, 7월은 참 잔인한 달이라 하겠다.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여름방학동안의 '이별'을 아쉬워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자.

1. 내맘대로 랭킹 정하기

친구들과 즐거웠던 한 학기를 정리하며 우리 반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내맘대로 랭킹 정하기' 활동을 소개한다.



'내맘대로 랭킹'에는 '한 학기 가장 고마웠던 친구는?', '한 학기를 마치며 2학기에도 꼭 하고 싶은 활동은?' 등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만든다. 질문 중에서 꼭 묻고 싶은 주제를 골라, 5가지 이상 설문 항목을 만든다. 친구들의 의견을 조사한 후에

는 8절 색지에 색연필과 사인펜을 이용하여 꾸미고 칠판 앞에 붙여 전시한다.

이때, 주제는 모두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질문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럴 때 부모님이 좋아요',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 베스트5' 등. 그리고 그래프와 그림을 그려 표현하면 더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2. 애벌레 러닝페이퍼 활동하기

등에 붙여진 종이에 칭찬을 써주다 보면 아이들이 애벌레처럼 길게 늘어서는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을 따서 붙인 이름이 '애벌레 칭찬' 활동이다. 한 학기를 정리하며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등을 등에 써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글이 내 등에 쓰여 있을지 기대감으로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다. A4라벨지를 한 장씩 받고, 친구와 서로의 등 뒤에 붙여 준다. 이때 머리가 긴 친구는 라벨지 종이가 머리에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돌아다니며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친구의 등 뒤에 다가가서 한 학기 동안 함께 보내며 알게 된 친구의 멋진 점을 적어준다. 또는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해 주어도 좋다. 자리에 돌아와 등 뒤의



라벨지를 떼어 보며, 가장 나를 기쁘게 한 글을 발표한다. 애벌레 칭찬 활동을 할 때 평소 따돌림을 받거나 조용한 학생들이 자칫 친구들이 글을 별로 써주지 않아 속상할 수도 있다. 선생님부터 먼저 그런 학생들을 찾아가 글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돌아다니며 몇 명의 아이들에게 칭찬의 글을 남겼는지 확인해주고 친구의 마음을 배려해 더 많이 글을 남겨준 친구들을 따로 칭찬해주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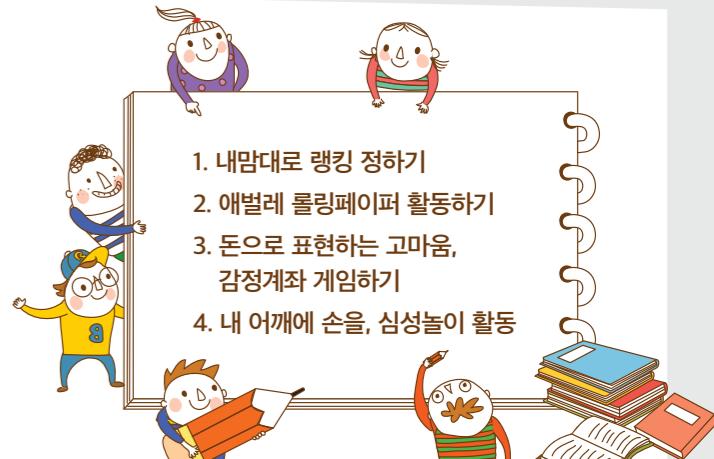
3. 돈으로 표현하는 고마움, 감정계좌 게임하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감정계좌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아이들은 처음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통장계좌처럼 마음속에 감정계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감동을 받았을 때는 '믿음'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배신을 당했을 때는 '신뢰'라는 돈이 빠져 나간다.'



아이들 개인당 만 원짜리 모형지폐를 15장씩 나누어준다. 한 학기 동안 가장 고마웠던 친구들을 미리 꼽아보고, 최대 3만원까지 돈을 나눠줄 계획을 세운다. 고마웠던 친구를 찾아가 그냥 돈을 건네지 말고, "그동안 아침마다 나를 기다려 함께 학교에 와줘서 고마워."라고 고마운 이유를 이야기하고 돈을 건넨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가장 많이 돈을 받은 아이들부터 일으켜 세워 왜 이 친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친구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속상할 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 선생님도 충분한 모형지폐를 준비해서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을 찾아가 칭찬과 함께 돈을 나누어주도록 한다.



4. 내 어깨에 손을, 심성놀이 활동



'어깨에 손을' 활동은 "한 학기 동안 가장 고마웠던 친구는?"이라고 질문을 하면 그 친구를 찾아가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활동이다. 음악을 멈추면 "한 학기동안 학교에 오고 집에 가는 길마다 좋은 말동무가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마음을 표현한다.

"한 학기 동안 가장 미안했던 친구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가장 미안한 친구를 찾아가 미안했던 마음을 표현한다. 옛 제자 유정이는 수빈이를 찾아가 "그동안 따돌려서 미안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따돌림받을까봐 용기를 내지 못했어."라고 말했고, 수빈이와 유정이는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다. 그해 헤어지기 전에 수빈이는 한 해 가장 자신을 잘 챙겨준 친구로 유정이를 꼽았다. 아이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해준 친구는?"란 질문으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들 속 마음 구도도 지켜볼 수 있었다. ☺

구석구석 떠나는 세계유산 탐방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우리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정서와 문화가 숨 쉬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찾아 떠나보자. 탁 트인 자연과의 만남은 덤이다.

종묘 & 창덕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다. 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기원하기 위해 문무백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한 공간으로 왕실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보여 준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하였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중심 건물인 종묘 정전은 정면이 매우 길고 건물 앞마당과 일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건축물로 꼽힌다. 오늘날까지도 종묘제례라 불리는 제사 의례가 행해지고 있으며 제사에는 종묘제례악의 음악과 춤이 동반된다.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다. 종묘는 3~9월까지만 개방하며,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관람이 이뤄진다. 관람 시간은 9시20분을 시작으로 한 시간 단위로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휴관(문의 02-735-5733)

종묘 관람을 마친 후에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문화유산 창덕궁을 함께 둘러보자. 종묘를 나와 돌담을 따라 걷다보면, 창덕궁과 만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궁궐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궐로 경복궁을 꼽지만, 임금이 머문 기간으로 따지면 창덕궁이 길다고 한다. 경복궁은 주요 건물들이 좌우대칭으로 반듯한데, 창덕궁은 산자락과 주변 지형에 따라 공간을 자연스럽게 배치했다. 사람과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궁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인정전은 연산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이 즉위식을 올린 곳이다. 문을 통과하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그 위에 우뚝 선 인정전이 보인다. 밖에서 보기에는 2층이지만 내부는 한 층으로 뚫린 구조다. 왕이 업무를 보던 선정전, 왕세자가 공부하던 성정각, 마지막 황실 가족이 머무르던 낙선재도 눈여겨볼 곳 중 하나다.



왕세자가 공부하던 창덕궁 성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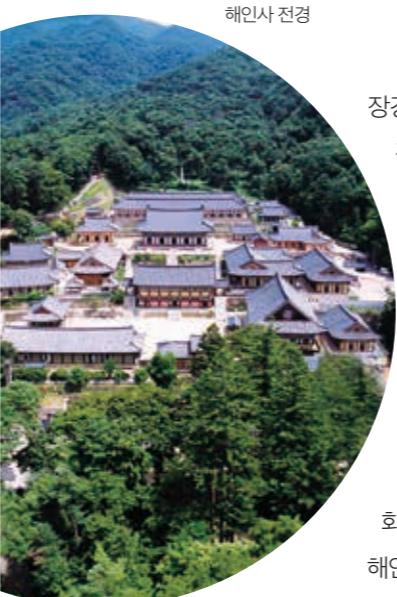
창덕궁의 전각은 자유 관람이 가능하지만 후원관람은 사전예약을 해야만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둘러볼 수 있다. 매주 화요일 휴관(문의 02-3668-2300)

해인사 장경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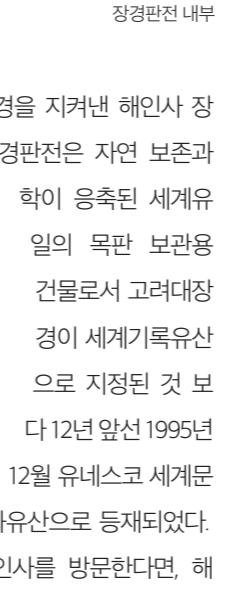
국립공원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 장경판전 등을 비롯해 국보 보물 중 70여 점의 유물이 산재한 곳이다. 다른 모든 목판 대장경은 훼손되거나 소실되었지만 고려대장경만은 유일하게 오늘날까지도 보존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습도와 해충에 약한 목판 고려대장경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공간 '장경판전' 때문이다. 해인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네 개의 건물 장경판전이 있다. 장경판전의 바닥에는 종해를 막는 소금과 함께 숯, 황토 등을 사용하여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도 조절 장치도 갖추고 있다. 고려대



장경판전 외부



해인사 전경



장경판전 내부

경주역사유적 지구

삼국 중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꽂 피운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경주는 도시 자체가 문화재이다. 경주역사유적 지구는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소로도 손꼽힌다. 경주로 여행을 떠난다면, 경주 역사문화탐방 스텁프 투어에 도전해 보자.

경주의 월성은 신라의 궁궐로 사용되는 곳으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지형이 달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월성이라고 불린다. 월성에는 현재 발굴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월성 안에는 얼음 창고였던 석빙고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얼음을 만들어 사용했을지 무척 궁금해진다. 경주에 낮보다 밤이 더 빛나는 유적지가 있었으니 동궁과 월지이다. 경주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꼭 들러보길 권한다. 통일신라시대 별궁인 동궁과 월지는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든다 하여 '안압지'로 불린다. 이곳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라 최초의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 첨성대는 지반의 약화로 약간 기울어졌을 뿐 천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경주는 곳곳에서 고분을 만날 수 있는데, 신라의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은 천마총, 황남대총, 미추왕릉 등 많은 고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릉원의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길을 따라 걷노라면, 과거 친란했던 천년 신라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



경주 대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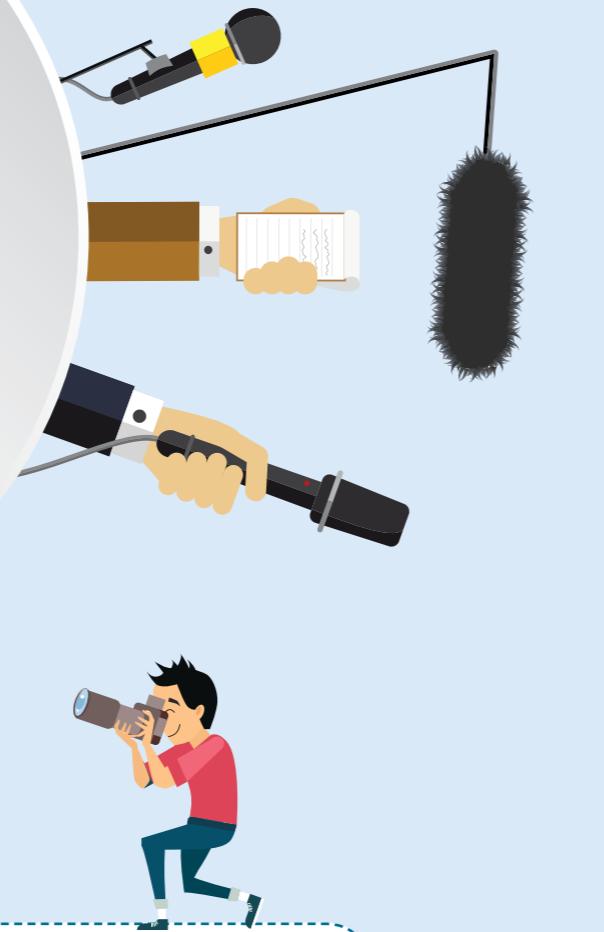
경주 동궁과 월지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움의 빛으로 가득한 호롱불 야학

“호롱불은 다른 사람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르쳐드리는 것 보다 할머니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2학년 이혜인 학생은 말했다. 논산시 부창동 주민센터 작은 공부방에서 몇 년째 지천 명의 나이를 훌쩍 넘긴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어가며, 서른 살 넘게 차이 나는 선생님들께 매일 밤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터에 마련된 공부방에서 월曜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과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진행된다. 쌈粲여자고등학교(교장 손민숙) 1, 2학년 26명으로 구성된 선생님들은 하루에 3~4명씩 조를 편성하여 주 1회씩 3시간씩 교육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호롱불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나이 많은 학생과 나이 어린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배움의 터인 호롱불. 오늘도 작은 공부방은 배움의 빛으로 가득하다.

김종우 명예기자(두마초 주무관)

상록야학을 지키는 이 사람

상록야학(교장 박학선)은 1976년 3월 새마을 상록중학교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학생 36명, 교사 6명으로 개교한 이래 현재 교사 30명과 중고등학교 학생 8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록축제, 졸업식, 체육대회, 소풍, 백일장 등의 매달마다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록야학을 졸업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연어처럼 돌아오셔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박용준 선생님<사진>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야학을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셨지요?

A 제가 형제가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야학에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심훈의 상록수처럼 공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책을 잡게 해주어 초·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여 대학교까지 진학하여 꿈에 그리던 국문과에서 공부도 마치고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다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Q 30년 넘게 상록에 몸을 담고 계신데 그동안 가장 보람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인지요?

A 80세 넘으신 어머님이 중학교 공부 못한 것을 아쉬워하여 하나님도 배우고자 경기도에서 혼자 찾아오셔서 수학과목,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상록 야학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A 예전에는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이 교사로 봉사활동을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취업이 어려워 봉사하고자 하는 교사 분들이 적어서 걱정입니다. 현재 30여 분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어 주 1~2회씩 2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 중인 교사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푸르른 상록수처럼 많은 분들이 배워서 다른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 명예기자(상계초 교사)

주민예산학교에 가다



지난 6월 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 진흥원 2층 강당에서 주민예산학교가 열렸다.

주민예산학교란, 서울 교육예산·재정현황·재정계획 그리고 국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기본개념의 이해를 도모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주민 및 자문위원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백희 명예기자(학부모)

통일교육 ‘북쪽친구 알아보기’



성지초등학교(교장 조정숙)는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제4회 통일교육주간으로 전교생이 통일과 관련된 수업을 하며 북한친구에게 편지쓰기, 만화로 만나는 남북어린이들, 남북한의 언어비교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북쪽친구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의 이혜영 강사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북한의 어린이날,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 통일의 가치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오신 강사님께서 직접 북한의 생활에 대해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고 통일이 가지게 되는 가치를 설명해주심으로써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영목 명예기자(소화데레사유치원 주임교사)



사랑의 떡메로 감사의 떡 만들다

함안 예곡초등학교(교장 차일수)는 5월 20일 가족 사랑 공동체 예그리나 활동으로 전통 떡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만든 떡으로 노인정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는 부모님, 선생님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학기 초부터 준비되었는데, 4월에 5~6학년 실과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선생님이 학교 인근 야산에서 직접 채취한 쑥을 이용하여 쑥떡을 만들게 되어 그 의미가 더하였다. 또한 고사리 손으로 어르신들의 어깨와 팔, 다리를 주물러주는 덕에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마냥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며 어린 손자손녀들이 힘들어 할까 걱정하시면서 언제나 잊지 않고 자주 찾아주는 어린 학생들과 학교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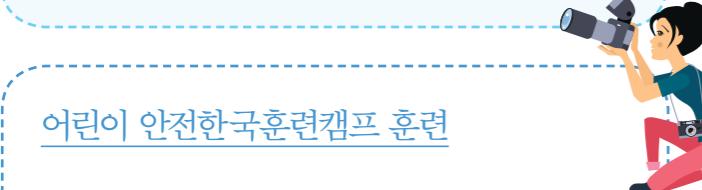
이하성 명예기자(한국미술협회함안지부 지부장)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 훈련

국민안전처는 최초로 시범 운영한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를 4월 20일부터 5주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매뉴얼과 재난안전지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을 설정하였다. 마지막 5주차에는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 최종훈련으로서 5월 20일 청옥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대피장소는 청옥초등학교 내 체육관으로, 훈련 아동은 5, 6학년 학생 420명으로 정하였다. 이번 최종훈련은 유독화학물질이 12분 이내에 학교로 도달하는 가상의 재난 상황에 대한 훈련이었다. 청옥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한 대피훈련의 경우, 대피시간이 1주차 1시간에서 5주차 15분으로 45분이 단축되어 어린이 안전의식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명예기자(청옥초 교사)



언플러그드 데이



지난 6월 11일 제주대 학교 교육대학에서는 '제6회 언플러그드 데이' 행사가 열렸다. 언플러그드 데이는 언플러그드 컴퓨팅 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육 행사로, 카카오, 제주대 교육대학,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주최와 제주교육 정보화연구회의 주관으로 올해로 여섯 번째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80여 명과 초·중등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했다. 언플러그드 컴퓨팅 교육이란 놀이를 중심으로 한 컴퓨팅 교육으로,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진수, 데이터의 표현,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등의 컴퓨터 과학 내용을 카드, 크레용 등의 주변의 문구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배우는 학습인 것이다. 컴퓨터가 없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인 언플러그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어린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쌓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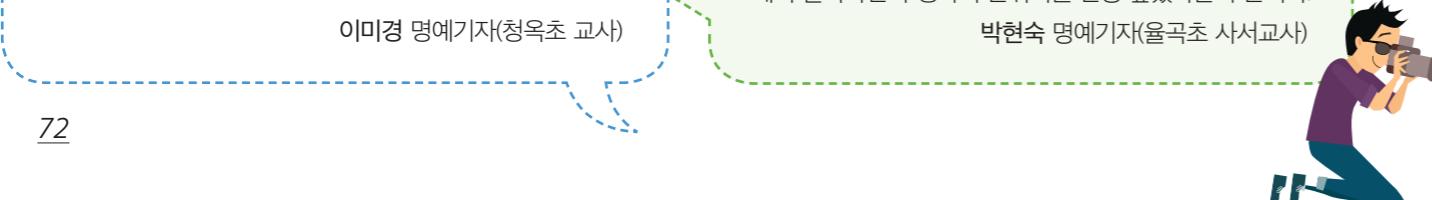
황유리 명예기자(대학생)

'오세요! 도서관이 안아줄게요~'



광주시립도서관이 주최하고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한 '제5회 광주시 도서관 문화마당'이 '오세요! 도서관이 안아줄게요~'라는 주제로 6월 4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주지역 대표 도서관 축제이며 이번 행사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출판사 등 50개 기관이 참여해 책과 독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지역 독서동아리와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체험부스에서 활약하면서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는 후문이다.

박현숙 명예기자(율곡초 사서교사)



독도, 문화예술로 꽂 피다

독도는 수려한 환경과 역사적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어 문화예술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역사인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의 섬 독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독도문화 대축제

해마다 10월이면 독도문화 대축제가 열립니다. 독도재단이 주최하고, 반크에서 주관하며, 경북도, 울릉군, 서울시가 후원합니다. '평화의 섬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재조명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청소년들의 독도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뚝섬에서 열렸습니다.

독도문예대전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독도와 울릉도,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 역사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독도의 영토적 주권을 강화하며 교육과 예술, 꿈과 미래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된 행사입니다.

독도 수중사진촬영대회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해외 홍보와 독도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장기 대책 중 하나로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독도 수중사진을 촬영하는 행사입니다.

국회 독도사진전시회

20대 국회 개원기념 독도 사진전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독도박물관이 보유한 독도의 사계절과 독도를 지켜온 사람, 독도방문객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40여점이 선보였습니다.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재외 한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제7회로서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작품을 주최측에 접수합니다. 국회의장상을 비롯하여 장관상 시도지사상 등 300여 개의 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며 독도재단에서 주관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후원합니다.

2016 독도어울림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

독도사랑운동을 전개하며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의 애국심을 기리고자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후원으로 포항 MBC가 추진하는 가요제입니다. 독도가요수비대를 구성해서 독도사랑 노래를 부르며, 전 국민이 독도를 지키고 우리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합니다. 매년 8~9월에 개최되며 지난 회에 이어 올해 2회째입니다.

신재일 명예기자(경북도청 사무관)

황선미 작가의 『일곱 빛깔 독도 이야기』를 만나다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독도의 속살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룬 책이 있다. 바로 『일곱 빛깔 독도 이야기』이다. 어린 주인공 환이를 등장시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논리 정연하면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알려 주는 창작 동화다. 우리에게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잘 알려진 황선미 작가가 독도 문제를 특유의 감성이 살아 있는 동화로 구성해 어린이들이 이를 읽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

게 펴낸 책이다.

이 책에는 독도의 위치, 지형, 지리, 생태, 역사도 살펴볼 수 있고, 일본이 왜 그토록 독도를 탐내는지도 알 수 있다. 기존의 독도 관련 서적들은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주었으면, 이 책은 사람 사는 이야기와 살아 숨 쉬는 자연에 중점을 둘 아이들이 읽기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신현태 명예기자(노화초 교사)

공부머리 만드는 비결(中)

내 머리에 맞는 계획표 만들기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계획하기는 공부두뇌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일까? 계획에 대해서 아이들의 대답은 대부분 “세워도 지키지도 못하는 데 세워서 뭐해요? 시간만 아깝지”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계획표. 왜 실패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은 학기의 끝이 되면 아이들은 한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바쁘다. 그 동안 미루어두었던 수행평가의 제출과 시험이 한데 몰려 너무 고생스러워 한다. 가까스로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는 “여름방학 때부터는 열심히 하리라” 다짐해보지만, 방학은 또 그렇게 훌러가 어느덧 개학을 코앞에 두기 일쑤다.

이런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당연히 “계획을 좀 세워서 공부하렴.”이란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실제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학생은 거의 없다. 내가 만난 학생들의 대답은 “세워봐야 뭐해요? 어차피 못 지키는데”이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획을 세워서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워서 득이 된 게 없으니 그 행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교육에 열심이어서 자녀교육 강좌도 열심으로 듣고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재미를 찾지 못해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다. 그 친구는 그곳에서 나누어준 공부 계획 노트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한 달 목표, 일주일간 공부할 것, 그날 공부할 것, 이 목록으로 적혀 있었다.

“전 이걸 펴 보지도 않게 되고요, 펴 보아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쓰느라고 힘들기만 하구요. 이런 건 하나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획을 세워서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워서 득이 된 게 없으니 그 행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득을 못 보는 것은 실은 계획을 잘 못 세우기 때문이다.

도 쓸모없다고요?”

거의 울부짖다시피 화를 내며 말했다.

“계획을 세우면 좋다고 하지만, 이렇 게 계획 세우는 건 너무 어렵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요?”

원래, 공부에 애착이 없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는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학생이다. 계획도 잘 세우고 싶고, 척척 잘해서 엄마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다.

이 학생이 찾아와서 처음에 했던 공부역량 평가에서 시각적 지능과 손의 움직임이 우수했던 것이 생각이 낫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흰 종이에 나무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과목들을 큰 가지로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으로 계획을 세워보았다. 손놀림이 빠르고 아무진 이 친구는 빠른 속도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갔다. 그리고 색을 바꾸어 가며 하루에 해야 할 것들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갔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동그라미 안을 채워 나가는 거다.

남이 만든 계획표는 이제 그만!

이 친구의 눈빛이 반짝이고 다음 주부터 매주 하나씩 나무 그림이 생겨나게 되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가 어떤 한 작업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일이 복잡한 것일수록 이 단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게 된다. 계획 세우기 안에 우리 두뇌가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역량이 다 들어가게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계획 세우기를 우리는 충분히 배운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에는 동그란 원에 선을 나누어서 일일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것이 전부였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시험 전에 시험 과목을 날짜별로 한두 개씩 쓰는 것이 전부였고, 대학교 와서는 플래너를 품나게 사 보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다.

남들이 만든 플래너나 계획표는 멋지다. 그런데 내가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계획표를 만든 사람과 나는 머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숲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림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그 유형에 적합하게 계획표를 만드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나서 그 유형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계획표를 보완할 수 있다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계획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고, 계획을 실천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결과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

*공부머리를 만드는 비결은 다음호에도 이어집니다.



노규식 박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청소년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전임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 책임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외래 교수 겸 연세 휴 클리닉 원장으로 일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담해 오고 있다.

학급DAY~ 뜻 깊고 재밌게 보내는 방법

서로를 위한 '칠레이 일기 쓰기' 어떨까요? 서로 고부에 만 물두하는 경쟁적인 봄위기에서 벗어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편지에 꾹꾹 눌러 담고, 한 권의 일기를 만들어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지요. 간혹 친구에 대해 물었던 사실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려 마니도 가 되어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장한나 / 교사

반 학생들이 농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짧은 쉬는 시간에도 농구를 하는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하여 '3점 슛DAY'를 만들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시간에 3점 슛 대회를 열어 한 번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한다면 활력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지훈 / 명예기자(교사)

아이들에게 시험점수라는 상관없이 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공부에 지쳤을 아이들을 위한 깔끔한 티셔츠입니다. 시험이 끝난 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들과 음료수를 양손 가득 들고 가니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아이들을 위해 사은하지만 잘 바하는 이벤트야말로 가장 기쁜 교실을 만드는 일 아닐까요?

이재영 / 명예기자(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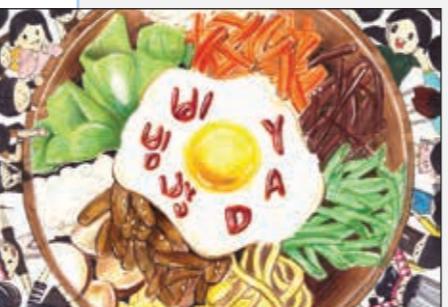
교실에 비는 사물함 하나를 행복한 사물함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물함에는 사탕과 같은 간단한 간식과 자신의 고민을 담은 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학교생활이 힘들 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안에 들어 있는 편지를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먹은 간식 개수만큼 다시 사다가 넣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물함 open day! 따뜻하고 행복한 사물함 하나가 교실의 분위기를 UP 시켜준답니다.



박병규 / 교사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아우인 형 만들기' DAY!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의 어린 친구들을 돋기 위해 '혜우여자중학 교 사물함'의 5개팀의 학생들이 '아우인형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천이나 헌 옷으로 인형의 옷을 만들고, 나만의 아우인형을 완성해 입장을 보내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아우인형 입장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하나 / 지역복지전문가



안산공고 2학년 김효진



안산공고 2학년 정민

학급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는 '학급 DAY'는 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이 만드는 즐거운 학급 이벤트인데요. 학교 공부에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교실을 만드는 '학급 DAY'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명예기자들이 소개합니다.



매월 마지막 날에 학급 생일 파티를 합니다. 이날 학생들은 모둠별로 모여앉아 준비해온 간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작성한 룰링페이퍼, 담임교사의 서명이 들어간 선물, 목청껏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와 케이크를 들고 찍은 기념사진까지. 학급 생일파티 DAY! 공부와 숙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천진난만하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손형빈 / 교사

매달 생일인 반 친구들을 모아서 '생일파티DAY'를 하고 싶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생일 축하를 한다면 더욱더 뜻 깊은 생일이 될 것 같습니. 학생들은 친구들과 자기 생일에 대해 행복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파티DAY'가 생긴다면 학교생활에 활기를 듬뿍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손나겸 / 교사

'칭찬DAY' 학급 친구들에게 꼭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하는 날입니다.

평소 친구에게 칭찬을 하는 건 많이 어색합니다. '칭찬DAY'를 정하여 서로 마음껏 칭찬해준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학급 분위기도 UP! 됩니다. 그리고 칭찬왕을 뽑아서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왕을 학급 게시판에 소개합니다.

김성은 / 고등학생

주회 '학급 독서 DAY'를 운영하는데요. 독서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는 활동을 하며 교사-학생, 학생-학생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밌고 놀난 학급 봄위기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글 맞 읊방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실례를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도 하고 때론 좋은 글귀나 자신이 만든 짧은 글로 명함, 책갈피 등을 만들어 친구에게 선물로 줍니다. '괜찮을 거야, 잘시 참고 있었던 날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홍준호 / 교사

'룰링페이퍼DAY'. 주제를 정하여 친구들과 예쁜 종이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칭찬 룰링페이퍼, 자랑 룰링페이퍼, 응원 룰링페이퍼, 사과 룰링페이퍼 등 반 친구들에게 평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합니다. '룰링페이퍼DAY'는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세진 / 고등학생

'쿡DAY' 학급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는 날입니다. 반 학생들이 단합하여 음식을 만들어먹는다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요리를 만들고 같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용재혁 /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인기 최고의 학급DAY는 바로 '게임DAY'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은 없겠죠? 가끔은 반 학생들과 함께 게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아요. 물론 이날은 반 친구들 이외에도 담임선생님이 꼭 함께 참여합니다. 게임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학급DAY가 될 것입니다.

이현우 / 고등학생

NEWS BRIEFING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개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가 열렸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21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방이 전 공기업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양부처가 마련한 행사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4개 공기업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16 지방이전 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는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 소재 고교 간

정보교류 활성화,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전북 지역」의 4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요강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설명하고, 모의면접을 시



현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입사한 고졸 지역인재 취업자가 후배들에게 수행중인 직무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취업준비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는 NCS 기반 채용지원을 위한 컨설팅 부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스킬 향상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시키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위해 채용콘서트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 추진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식봉사에 나선다.

2015년 및 2016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지식봉사를 하게 된다. 이들 봉사단은 7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 후 소외지역의 초·중·고를 방문하여 4~5일간 캠프형식으로 지식봉사를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 운영 절차>



‘소프트웨어’ 교육기부 주간 운영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6월 20~24일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하였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친밀한 경험을 통해 흥미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번 「소프트웨어 교육기부 주간」은 「친절한 친구,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총 21개 기관이 21종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3D 프린터를 망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컴퓨팅적 사고를 키우고, 소프트웨어 이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발표

여성 근무자에겐 경찰 연계 스마트워치 보급… 성폭력 범죄엔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는 도서벽지 관사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즉시 보완하고, 여성 근무자 전체에게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지난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도서벽지 관사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우체국, 지자체(보건진료소 등) 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0,7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혼자(가족단위 제외) 거주하는 여성은 총 1,366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를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

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 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의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 21일 현재, 70% 이상(당초 9% 수준) 보강 진행 중이다.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가 되어 추가 확인 과정 없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이달 중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지역의 주요 장소에는 성범죄

형량과 신고전화가 적힌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홍보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과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 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법적 조언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를 돋는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은 8월까지 직접 도서 지역의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요인을 정밀 진단한 뒤 경찰서별 지역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 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으며, 정부의 3.0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 폭력이 뿌리 뽑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복한 교육

“집에서 무료로 받아 보세요”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

<https://happyedu.moe.go.kr/>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편집인 대변인 이승복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연구사 곽은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총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행복한 교육』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에서 책에 실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반영

인문 · 사회 · 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과 인성교육 강화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확대

五자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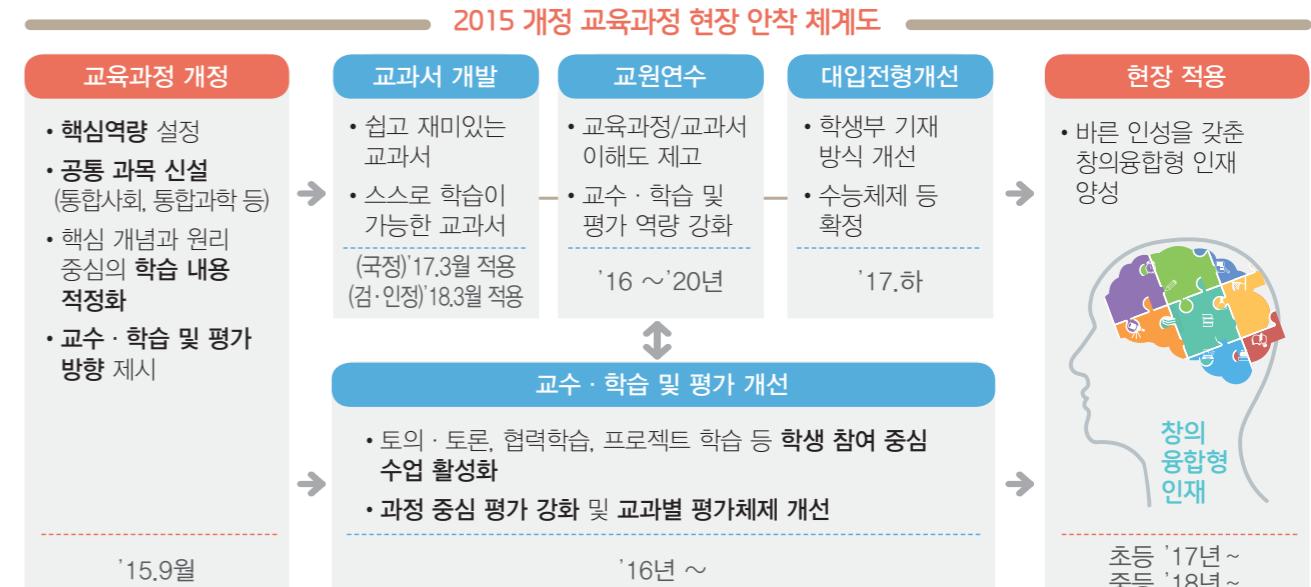
다툼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나만의 ○○○○○’

세상살이에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7월호에는 이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세요. 제작을 담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6월호 주제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한) 마음으로’

공명진(대동여지도), 차현미(무한포용력), 이정숙(상생에너지), 백혜영(한이뻥뚫린), 박현숙(늘처음같은) 님 축하드립니다.



* (중장기 추진과제) 교원자격 표시과목 개선 및 교원양성 기관 교육과정 개편 등